

『천주강생언행기략』(天主降生言行紀略)의 성격 및 그 저본 규명에 관한 연구

서원모*, 김창선**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의 표제어(1:1)처럼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정경으로 인정된 신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복음서가 네 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복음서의 일치와 조화는 그리스도교 신학자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알지 못하는 민족과 문명권에 예수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전하려는 전교자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요 과제였다. 신조나 교리 교육서에 나오는 간단한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성경에 충실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제시하려면, 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상이한 기록들을 어떻게 서로 연관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艾儒略, 1582-1649)¹⁾가 1635년에 간행한 『天主降生言行紀略』(이하 『언행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고대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wonmosuh@puts.ac.kr.

** University of Tübingen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 theologe@hanmail.net.

1) 알레니는 Louis Pfister, S. J.의 *Not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é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552-1773* (Chang-Hai: Impri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1932)에서 39번째 항목으로, 제1권 126-136쪽에 생애와 저서가 소개되며, 최근에 중국에서 전집이 영인본으로 출간되었다: 艾儒略, 『艾儒略 漢文著述全集: The Collection of Jules Aleni's Chinese Works』, vol. 2, 葉農 ed., (桂林: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1).

기략』)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²⁾ 『언행기략』은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승천과 교회 탄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서술한 작품으로, 넓게 보면 네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서로 엮어 제시한 ‘조화복음서’(Gospel Harmony, Harmonized Gospel, Evangelienharmonie)에 해당한다.³⁾ 하지만 『언행기략』은 조화본문 형태라고 할지라도 복음서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번역한 작품이다. 게다가 성경 외적 요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삽입했기 때문에 성경본문만을 제시한 엄밀한 의미의 조화복음서와는 구분된다. 이 점에 대해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본고는 『언행기략』이 서구에서 전래된 조화복음서 전통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다음, 『언행기략』의 내용을 그와 여러 면에서 유사해 보이는 바르톨로메오 리치의 『복음서에서 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Vita D. N. Iesu Christi ex uerbis Euangeliorum in ipsismet concinnata*, 1607)와 비교하는 가운데 리치의 이 작품이 『언행기략』의 저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보려 한다.

2. 서방 세계의 조화복음서 전통과 『언행기략』의 위치

교회사를 통해 예수의 생애 묘사와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복음서 보도들을 조화시키는 전통은 서사시, 노래, 묵상-건덕 문헌, 소설, 금언, 성경 주석, 설교, 연대기와 역사, 교과서, 신학 논문, 도해 등 다양한 문학 장르로 표현되었다.⁴⁾ 여기서는 한 특정한 문학 장르, 곧 ‘조화복음서’에 초점을 두고자

2) 『언행기략』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審鳳娟, “述而不譯? 艾儒略 《天主降生言行紀略》의 跨語言敘事初探”, 『中國文哲研究集刊』,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第三十四期 (2009. 3.), 111-167; Gang Song, 宋剛, “從經典到通俗: 《天主降生言行紀略》及其清代改編本的流變”(From Sacred Scripture to Popular Narrative: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and its Later Adaptations in Qing China*), 『天主教研究學報』 2 (2011), 208-260; 서원모, 곽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 - 『天主降生言行紀略』과 『天主降生聖經直解』와 『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 (2017), 115-157. 본고에서는 『언행기략』의 저본으로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이하 Bnf) Chinois 6709를 사용하였으며, Bnf Chinois 6716도 참조하였다.

3) 『언행기략』은 1642, 1738, 1796, 1852, 1903, 1925, 1928년에 중간되었으며, 관주와 해설을 제외하고 본문만 수록한 『천주야소성적』(天主耶穌聖跡)과 『언행기략』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야소언행기략』(耶穌言行紀略)도 나왔는데, 후자는 일본어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행기략』이 한국에 소개되거나 언해본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4) D. Wunsch, *Evangelienharmonien im Reformationszeitalt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Leben-Jesu-Darstellungen*, Arbeiten zur Kirchengeschichte 52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3), 6.

한다. 조화복음서는 네 복음서를 하나로 엮어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의 전 생애를 하나의 본문 혹은 병행본문(synopsis)으로 제시하는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화복음서는 복음서의 특정 본문을 병행본문과 연결시켜 하나의 본문으로 만드는 작업(‘조화본문’)이나 예수의 탄생, 수난 혹은 부활에 초점을 두는 글(‘탄생과 유아기 이야기’, ‘수난 이야기’, ‘부활 이야기’)과 달리 예수 생애 전체, 즉 복음서 전체 내용을 포괄하려고 시도한다.⁵⁾ 이러한 조화복음서 전통은 고대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시대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하는데, 『언행기략』도 이러한 조화복음서 전통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조화복음서의 역사는 복음서 정경화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고대 교회, 특히 2세기 초반에 이미 4복음서의 수집물이 존재했음이 분명하나,⁶⁾ 다른 한편으론 4복음서의 존재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마르키온(대략 85-160)은 누가복음서만 인정하였고, 유대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중요시했고, 게다가 나사렛인의 복음서, 에비온파의 복음서 외에도 히브리인의 복음서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반면 영지주의자들은 도마복음, 빌립복음 등 정경에 포함된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들도 사용했다.⁷⁾

2세기 말경에 복음서 부분과 사도 부분의 두 가지 형태 가운데 신약성서의 정경화 과정이 상당 부분 완성되었다. 당시 4복음서의 존재를 최초로 정당화시킨 신학자는 리옹의 감독 이레나이우스였다. 그는 그리스도 모형론의 관점에서 4복음서를 최초로 네 가지 성서적 상징에 비유했다.⁸⁾ 3세기에 이르면 4복음서는 교회에서 확고하게 정경으로 인정되었고, 그와 더불어 4

5) 본고에서 ‘조화본문’은 두 개 이상의 복음서 본문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본문으로 정의하고, ‘조화복음서’는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에 이르는 전 생애를 ‘조화본문’이나 ‘병행본문’으로 제시하는 작품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6) 2세기에 4복음서를 전제하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후대의 첨가가 분명한 막 16:9-20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요한복음의 부활 현현 보도(20:11-18)와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 누가복음의 현현 보도(24:13-35)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결론부에 나오는 온 세상을 향한 제자 파송(28:19-20)은 사도행전에 따른 온 세상을 향한 선교와 연결된다. 2세기 때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켈소스(Celsus) 역시 4복음서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G. Theissen,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s als literaturgeschichtliches Problem* [Heidelberg: Winter, 2011], 289).

7) 신약 외경 복음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송혜경, 『신약 외경. 상권: 복음서』(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09); E. Hennecke and W. Schneemelcher,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n deutscher Übersetzung I* (Tübingen: Mohr, 1999).

8) 이레나이우스는 마태복음을 인간, 마가복음을 독수리, 누가복음을 송아지, 요한복음을 사자에 비유했다(『이단 논박』[*Adversus haereses*] III.11.8). 반면 히에로니무스는 『마태복음 주해』(*Commentarii in Evangelium Matthaei*) 서문에서 마가복음을 사자,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비유했다. 알레니는 『언행기략』의 서문격인 “萬日晷經說”에서 히에로니무스의 가르침을 따른다.

복음서에 나타난 병행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복음서의 병행구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려는 정경 목록표가 나타났는데, 이는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오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를 수정한 카이사레이아의 에우세비오스의 목록은 널리 알려져서 복음서 필사본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⁹⁾

또한 정경으로 인정된 복음서가 네 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일치와 조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는 진리를 단 하나의 통일성 가운데 이해하려는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경향성과도 부합한다. 그리하여 공관복음서나 4복음서 전체를 하나의 복음서로 엮으려는 조화복음서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조화복음서 전통은 2세기 중엽의 타티아노스의 『4복음 조화서』(*Diatessaron*)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시리아 교회에서는 『4복음 조화서』가 5세기까지 복음서 본문으로 예배 때 봉독되고 설교되었으며, 신학적으로 주해되었다. 타티아노스의 『4복음 조화서』의 원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동방과 서방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역본이 존재한다.¹⁰⁾

서방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복음서 병행본문의 일치와 차이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그는 네 권으로 이루어진 『복음서 기자들의 일치』(*De consensu euangelistarum*)에서 복음서기자들의 상이한 진술을 상호 모순이 아니라 “조화로운 다양성”(concor diversitas)으로 이해하려고 했다.¹¹⁾ 이 작품 제2권~4권에서 그는 먼저 마태복음을 따르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병행 보도들 안에 모순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런 다음 4복음서의 수난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의 조화본문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에 대해 언급했다.¹²⁾ 아우구

9) ‘에우세비오스 정경 목록’ 혹은 ‘암모니오스 단락’에 대해서는 Carl Nordenfalk, *Die spätantiken Kanontafeln: kunstgeschichtliche Studien über die eusebianische Evangelien-Konkordanz in den vier ersten Jahrhunderten ihrer Geschichte*, vol. 2, (Goteborg: Iascson, 1938); G. H. Gwilliam, “The Ammonian Sections, Eusebian Canons, and Harmonizing in the Syriac Tetraevangelium”, *Studia Biblica et Ecclesiastica* 2 (1890), 241-272; Harold H. Oliver, “The Epistle of Eusebius to Carpianus: Textual Tradition and Translation”, *Novum Testamentum* 3 (1959), 138-145; D. C. Park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315-316을 보라.

10) 순교자 유스티누스, 안티오케이아의 테오필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오스가 조화복음서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타티아노스의 『4복음 조화서』의 생성과 유포와 역사적 의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로는 William L. Petersen, *Tatian's Diatessaron: Its Creation, Dissemination, Significance, and History in Scholarship* (Leiden: Brill, 1994)를 보라.

11) 아우구스티누스, 『복음서 기자들의 일치』(*De consensu euangelistarum*), II.66.

12) D. Wünsch, *Evangelienharmonien im Reformationszeitalt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Leben-Jesu-Darstellungen*, 23, n. 10.

스티누스는 복음서를 조화시키는 학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부분적이거나 조화본문을 보여주었으나 완전한 형태의 조화복음서를 만들진 않았다.

타티아노스의 『4복음 조화서』는 서방 그리스도교 세계에 전해져 라틴어와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중세 말에 이르기까지 서방 조화복음서의 핵심을 형성했다. 서방 조화복음서는 6세기 중엽에 생성된 불가타 필사본인 풀다 사본(Codex Fuldensis)까지 소급되는데, 일부 필사본은 후대에 기록되었지만 풀다 사본보다 타티아노스의 본문에 더 가까운 본문 단계를 보여 주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갈래로 전승되더라도 서방 디아테사론 전통은 더 발전되지 않고 고정된 형태로 존재했다.

중세 말에 저명한 교회개혁자 장 제르송(1363-1429, Jean Charlier Gerson)은 서방 조화복음서 역사에 전환점을 보여준다. 그는 개별 복음서의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한 후 하나의 글로 조합하여 새로운 조화복음서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작업을 계승한다고 생각했고, 타티아노스의 『4복음 조화서』와 구별하기 위해 『합일복음서』(*Monotessaron seu unum ex quatuor euangeliis*)란 이름을 붙였다.¹³⁾ 제르송의 조화복음서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16세기까지 자주 중판되고 번역되었다. 제르송 이후 근대 성서학이 발전하기까지 지역과 전공이 다른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와 기법, 다양한 동기와 목표로 허다한 조화복음서가 저술되고 출판되고 주해되었는데,¹⁴⁾ 여기서는 16세기와 17세기 초에 중요한 조화복음서 저자 세 사람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람은 16세기의 가장 괄목할 만한 조화복음서 저자로서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이다. 오시안더는 16세기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학문적인 형태의 조화복음서를 만들었다. 그는 신적 본질은 나눌 수 없으며 복음서는 하나의 계시를 담은 책이므로, 근본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음서의 신학적 차이나 복음서 저자의 개별적 특징이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네 복음서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신적 계시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시안더는 예수의 생애를 묘사할 목적으로 집필한 네 권으로 구성된 조화복음서를 남겼는데(*Harmoniae euangelicae libri quatuor Graece et Latine*,

13) Ioannes Gerson, *Monotessaron seu unum ex quatuor euangeliis in Ioannis Gersonii opera omnia, opera et studio M. Lud. Ellies du Pin*, 4 (Antwerpen, 1706), 83-202. 『합일복음서』란 용어는 타티아노스의 『4복음 조화서』(*Diatessaron*)와 구분하기 위해 제르송이 자신의 저작을 *Monotessaron*이라고 명명한 의도를 살린 번역이다.

14) 16세기의 다양한 조화복음서에 대한 서술은 D. Wünsch, *Evangelienharmonien im Reformationszeitalt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Leben-Jesu-Darstellungen*을 참조하라.

1537), 자신의 작품을 하나의 장르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유일한 조화복음서(“die Harmonie”)로 이해했다.

두 번째 사람은 가톨릭 측에 속한 사람으로 루벵대학교 교수이며 겐트 감독인 얀센(Cornelius Jansen, 1510-1576)이다. 그는 『복음의 화합』(*Concordia euangelica, in qua praeterquam quod suo loco ponuntur quae euangelistae*, 1549)이라는 조화복음서를 만들었다. 오시안더와 달리 얀센은 젊은 사제들에게 복음서 이야기를 유용하게 제시하려는 실천적인 관심으로 조화복음서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오스에서 오시안더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조화복음서 작업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4복음서가 모두 “혼돈되고 다양하게”(confuse et uarie) 예수 이야기를 서술한다고 인식하고, 역사적 순서(ordo historiae)를 보증하고, 복음서 전체를 포괄하는 조화복음서를 만들고, 이를 주해했다(*Commentarius in Concordiam ac totam historiam euangelicam*, 1572). 얀센의 조화복음서는 이후 가톨릭 학자들의 조화복음서와 예수 생애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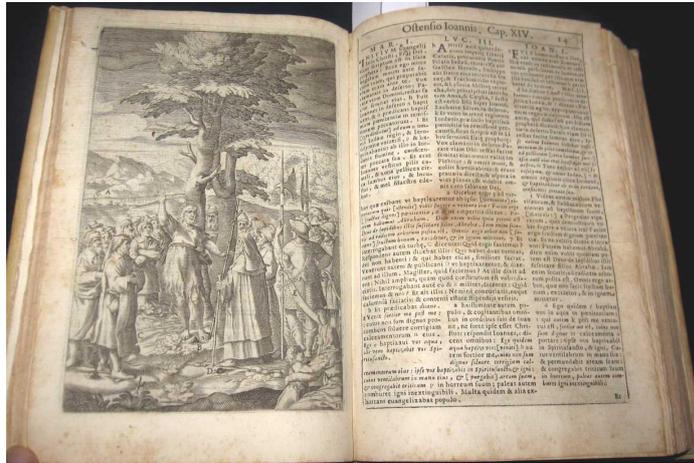
마지막 세 번째 사람으로서 바르톨로메오 리치(Bartolomeo Ricci, 라틴어로는 Bartholomaeus Riccius, 1542-1613)를 언급할 수 있다. 리치는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신부로 오랜 기간 동안 로마에서 수련수사를 지도했으며, 예수의 생애와 묵상 방법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다. 예수의 생애와 관련되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의 작품으로서 복음서의 병행본문을 도해와 함께 제시한 『복음서에서 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하 『우리 주 예수의 생애』)가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작품은 알레니의 『언행기략』이 저술되는 1635년 이전에 만들어진 조화복음서 중에서 『언행기략』과 가장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여러 형태로 발전되었다. 라틴어 조화복음서가 출판되고 2년이 지나 이탈리아본이 출판되었고, 1621년에는 복음서 본문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병행본문과 함께 조화본문, 예형, 간략한 해설을 포함한 『합일복음서』(*Monotessaron euangelicum: apositis scholiis et figuris propheticis illustratum*)가 나왔다. 이는 병행본문뿐만 아니라 조화본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행기략』과 더욱 가까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연대적으로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알레니가 『언행기략』을 저술할 당시에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 하에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조화복음서로서 『언행기략』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¹⁵⁾ 알레니가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알았고 중국으로 가져와 사용했다는 정황

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알레니는 이탈리아 예수회 수사로서 수련수사 때에 리치에게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알레니가 극동 선교를 위해 1609년에 이탈리아를 떠나 1610년에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607년에 생성된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1607)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레니는 『천주강생출상경해』(天主降生出像經解)를 나달(Jerónimo Nadal, 1507-1580)과 달리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에서 시작하고, 나달의 『복음역사 도해집』(*Evangelicae historiae imagines*)에 없는 첫 도해를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에서 가져왔다. 더욱이 알레니는 『천주강생출상경해』의 도해 배열을 그 저본이 되는 『복음역사 도해집』이 아니라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일치시켰다.¹⁵⁾

<그림 1> 『복음서에서 뽑은 우리 주 예수의 생애』



따라서 본고의 주요한 연구 과제는 내용적 측면, 곧 조화복음서 전통에서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관계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 알레니가 『언행기략』을 집필할 때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저본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3. 『언행기략』과 바르톨로메오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 비교

이제 알레니의 『언행기략』과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조화

- 15) 필자는 『언행기략』의 구조를 16세기와 17세기 초에 나온 주요한 조화복음서와 대조하여, 예수 사건 배열에서 리치의 조화복음서가 『언행기략』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안센의 조화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배열과 거의 일치하지만, 양자가 다른 부분에서 『언행기략』은 리치와 일치한다. 또한 조화본문 구성에서 특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된 산상수훈과 심판예언에서 리치와 안센은 다르며, 『언행기략』은 리치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다루지 않는다.
- 16) 『천주강생출상경해』와 나달의 『복음역사 도해집』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원모, 곽문석, “성경 도해와 문화전수: 『천주강생출상경해』(천주강생출상경해, 1673)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7 (2017), 151-198을 참조하라.

복음서란 관점에서 비교하기로 하자. 이는 크게 조화복음서의 구조 측면과 조화본문의 구성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된 작품으로 존재하는 탄생과 수난/부활 이야기는 제외하고, 수난 이야기 이전 공생애 사역(제2권-제6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조화복음서의 구조 측면

3.1.1.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 구조 비교

알레니의 『언행기략』은 1635년 천주(泉州)에 위치한 진강경교당(晉江景教堂)에서 목판으로 출간되었다.¹⁷⁾ 『언행기략』은 크게 서문과 본문으로 나눌 수 있고, 일부 판본에는 범례가 포함되어 있다.¹⁸⁾ 본문은 8권 165항목으로 예수의 생애를 서술하는데, 리치의 조화복음서와 비교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르다. 리치의 조화복음서는 누가복음 서문(눅 1:1-4; Praefatio)과 요한복음 서문(1:1-5; Aeterna Christi generatio, c.1)으로 시작하고 승천(눅 24:49-53; 막 16:19-20 ; 요 21:25; 행 1:9-11; Ascensio, c.160)으로 끝맺지만, 『언행기략』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눅 1:5-24; 天主許生若翰將爲前驅 I.1)에서 시작하고, 성령 강림(행 2:1-4; 聖神降臨 VIII.13)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행 2:5-15; 宗徒敷教萬方 VIII.14)까지 다룬다.¹⁹⁾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는 『언행기략』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에데사(厄得撒)의 왕 아브가르(亞加罷錄)의 이야기를 독자적인 항목으로 예수의 수전절 설교(요 10:22-42; 自證眞主渡河以居 V.13)와 잃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눅 15:1-10; 論罪人可矜 V.15) 사이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賢王請耶穌 V.14).²⁰⁾

<표 1>은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리치와 알레니의 조화복음서는 예수 배열 순서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만,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서문(Praefatio, c.1),

17) 天主降生救世後一千六百三十五年 崇禎八祀歲次乙亥孟秋晉江景教堂敬梓(Bnf Chinois 6709, 제8권 10b.8-9).

18) 『언행기략』 서문과 범례에 대해서는 서원모, 광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 121-124를 보라.

19) 본고에서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장(c.=capitula)을 중심으로 제시하며, 『언행기략』의 권수와 항목은 로마자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I.1은 제1권 제1항을 뜻한다.

20) 이 일화는 고대의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오스와 『아다이의 가르침』(Doctrina Addai)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언행기략』에서는 에우세비오스의 글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온다. 에우세비오스, 『교회사』(Historia ecclesiastica), 1.13; 『아다이의 가르침』의 본문은 The Teaching of Addai, George Howard, trans., Text and Translations 16 (Chico: Scholars Press, 1981)을 참조하라.

요한의 투옥(Incarnatio Ionannis, c.23), 금식 논쟁(Apostoli cur non ieiunent, c. 39), 요한의 처형(Decollatio Ioannis, c.67), 바리새인과 식사(Prandium Pharisaei, c.92), 바리새파와 율법학자 비난(Comminationes, c.123), 깨어 있으라는 말씀(Ignotus dies Iudicij, c.127), 달란트 비유(Talenta, c.129)는 『언행기략』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우리 주 예수의 생애』에 없는 내용인 아브가르 왕의 이야기(V.14, 賢王請耶穌)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모에게 나타나심(VIII.2, 一見身于聖母), 베드로에게 나타나심(VIII.4 四見身于宗徒), 승천 성소(VIII.12, 升天聖所), 성령 강림(VIII.13, 聖神降臨), 베드로의 설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VIII.14, 宗徒敷教萬方)에 관한 내용이 『언행기략』에 추가되었다. 알레니는 『언행기략』의 서문격인 “만일약경설”(萬日畧經說)에서 4복음서의 내용을 모아 요약하여 말의 뜻을 대략 통달하여 감히 경을 번역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저작의 성격을 밝힌다.²¹⁾ 따라서 『우리 주 예수의 생애』에서 빠진 부분은 알레니가 『언행기략』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반면 복음서의 본문만 제시하는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달리 알레니는 성모와 베드로에 대한 교회 전승도 함께 제시하여 선교 상황에서 그리스도교를 소개하려는 관심을 보여 주었다.

<표 1>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구조

	『언행기략』	성경 본문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에 제시된 본문)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없음	눅 1:1-4 요 1:1-3	Praefatio, c.1 (Ex Luca, Aeterna Christi generatio)
제 일 권	1. 天主許生若翰將爲前驅 천주께서 요한이 선도자가 되도록 탄생을 허락하다	눅 1:5-25	Conceptio Ioannes c.2
	2. 聖母領天主降孕之報 성모가 천주 잉태 소식을 받다	마 1:1; 눅 1:26-38; 요 1:14	Temporalis Chisti generatio. c.3
	3. 耶穌歷代之祖 예수의 역대 조상	마 1:2-17	Christi genealogia. c.4
	4. 聖母往見依撒伯爾 성모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눅 1:39-56	Visitatio Elilabeth c.5
	5. 聖若翰誕 요한이 탄생하다	눅 1:57-80	Natiuitas Ioannis. c.6

21) 今將四聖所編, 會撮畧畧, 粗達言義 [중략] 雖不至隕越經旨, 然未敢云譯經也(“萬日畧經說” Bnf Chinois 6709 4a.4-6).

	6. 天神示若瑟異胎之繇 천사가 요셉에게 놀라운 잉태의 이유를 알리다	마 1:18-25	Reuelatur Conceptus Virginis. c.7
	7. 天主耶穌降誕 천주 예수가 탄생하다	눅 2:1-7	Naciuitas D. N. Iesu. c.8
	8. 天神降諭靈蹟疊見 천사가 내려와 이적을 알리고 거듭 보여 주다	눅 2:8-20	Pastores, Circumcisio. c.9
	9. 遵古禮定聖名 옛 예식을 지켜 기록한 이름을 정하다	눅 2:21	
	10. 三王來朝 세 왕이 와서 알현하다	마 2:1-12	Magi. c.10
	11. 聖母獻耶穌于聖殿 성모가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다	마 2:13a; 눅 2:22-38	Praesentatio. c.11
	12. 耶穌避居陋日多國 예수가 이집트로 피하여 거하다	눅 2:39a; 마 2:13-23	Innocentes, [fuga in Aegyptum]. c.12
	13. 耶穌十二齡講道 예수가 열두 살에 도를 가르치다	눅 2:41-52	Iesus Duodemnis. c.13
제이권	1. 耶穌受洗示表 예수가 세례 받고 표적을 보이다	막 1:1-8; 눅 3:1-18; 요 1:6-8; 마 3:1-12	Ostensio Ioannis. c.14
		막 1:9-11; 마 3:13-17; 눅 3:21-38	Baptismus Christi c.15
	2. 耶穌四十日大齋驅魔誘試 예수가 40일 금식하고 마귀 유혹을 물리치다	눅 4:1-13; 막 1:12-13; 마 4:1-11	Tentatio c.16
	3. 聖若翰再三證耶穌爲眞主 요한이 예수께서 참 주라고 세 번 증언하다	요 1:15-34	Testimonium primum Ioannis. c.17
	4. 耶穌初招門徒 예수가 첫 제자를 부르다	요 1:35-51	Vocatio prima Discipul. c.18
	5. 婚筵示異 결혼 잔치에 이적을 보이다	요 2:1-11	Nuptiae Canae Gal. c.19
	6. 初淨都城聖殿 도성 성전을 처음 정화하다	요 2:12-25	Eiectio prima e Templo. c.20
	7. 尼閣得睦夜訪談道 니고데모가 밤에 방문하여 도를 이야기하다	요 3:1-21; 1:10-12	Nicodemus. c.21.
		요 3:22-36	Testimonium alterum Ioannis. c.22.
	없음	눅 3:19; 마 14:3-5; 막 6:17-20	Incarceracio Ioannis c.23

8. 西加爾乞水化人 수가에서 물을 구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다	막 1:14a; 요 4:1-27; 마 4:12	Samaritana c.24.
	요 4:28-42	Samaritani c.25.
9. 加理勒亞化衆愈王子疾 갈릴리에서 군중을 감화시키고 왕의 아들의 병을 고치다	요 4:43-54; 마 4:13-17; 눅 4:14-15; 막 1:14b-15	Filius Regali c.26.
10. 招四宗徒 네 제자를 부르다	마 4:18-22; 막 1:16-20	Secunda vocatio discipulorum c.27
11. 命漁得魚 어부에게 고기를 잡도록 명하다	눅 5:1-11	Copiosa piscatio c.28.
12. 葛發翁諸聖蹟 가버나움에서의 이적	눅 4:31-37; 막 1:21-28	Daemonicus in Synagoga c.29
	눅 4:38-41; 막 1:29-34; 마 8:14-17	Socrus Simonis c.30.
	눅 4:42-44; 마 4:23-25; 막 1:35-39[한센병자 치유]; 눅 5:12-16; 막 1:40-45	Circuitio Galilaeae c.31.
13. 訓責三徒 세 제자를 꾸짖어 훈계하다	마 8:18-22; 눅 9:57-62	Reprehensio trium c.32.
14. 渡海止風 바다를 건너 풍랑을 멈추다	눅 8:22-25; 마 8:23-27; 막 4:35-41	Maris tempestas c.33.
15. 驅魔入豕 귀신을 쫓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다	눅 8:26-31; 마 8:28-29; 막 5:1-10	Legio daemonum pellitur. c.34
	눅 8:32-39; 마 8:30-9:1; 막 5:11-20	In porcos mittitur legio. c.35.
16. 起癱證赦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죄 용서를 증언하다	눅 5:17-20; 마 9:1-2; 막 5:21; 2:1-5	Paralyticus. c.36.
	마 9:3-8; 막 2:6-12; 눅 5:21-26	Sanatior Paralyticus. c.37.
17. 招瑪竇爲徒 마태를 불러 제자를 삼다	눅 5:27-32; 막 2:13-17; 마 9:9-13	Vocatio Mathaei. c.38.
없음	막 2:18-22, 5:21-24; 눅 5:33-39, 8:42; 마 9:14-19	Apostoli cur non ieiunent. c.39.
18. 葛發翁又救淋者死者瞽者瘡者 가버나움에서 다시 혈루병자, 죽은 자,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를 고치다	마 9:20-22; 눅 8:43-50; 막 5:25-37	Emorrhoea c.40
	막 5:38-43; 마 9:23-26; 눅 8:51-56; [치유] 마 9:27-34	Filia archisynagogi. c.41

	19. 瞻禮日起癱瘓人 안식일에 중풍 병자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치다	요 5:1-18	Piscina c.42
	20. 耶穌自證眞主諭異端 예수께서 스스로 참 주라고 증언하고 이단을 깨우치다	요 5:19-47	Aequalit. probat cum Patre. c.43
	21. 論食麥穗 보리 이삭을 먹은 것을 논하다	눅 6:1-5; 막 2:23-28; 마 12:1-8	Conflicatio spicarum c.44
	22. 瞻禮日起瘓者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다	마 12:9-14; 눅 6:6-11; 막 3:1-7; [무리 치유] 마 12:15-21; 막 3:8-12	Manus arida c.45
	23. 立十二宗徒 열두 제자를 세우다	눅 6:13-19; 막 3:13-19; 마 5:1	Sermo Domini in monte c.46
제삼권	1. 山中聖訓 산상수훈	눅 6:20-26; 마 5:2-16	
		마 5:17-39	Continuatio sermonis c.47
		마 5:40-48; 눅 6:27-36	Continuatio sermonis c.48
		마 6:1-18	Continuatio sermonis c.49
		마 6:19-34	Continuatio sermonis c,50
		눅 6:37-45; 마 7:1-6, 15-20	Continuatio sermonis c.51
		마 7:6-14, 21-29; 눅 6:46-49	Continuatio sermonis c.52
	2. 葛發翁又聖蹟 가버나움 이적	[한센병자 치유] 마 8:1-4	Seruus Centurionis c.53
		눅 7:1-10; 마 8:5-13	
	3. 納嬰聖蹟 나인성 이적	눅 7:11-17	Fillus Viduae c.54.
	4. 若翰遣使詢主 요한이 제자를 보내 주께 묻다	마 11:2-19; 눅 7:18-35	Legatio Ioannis c.55
	5. 赦悔罪婦 참회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다	눅 7:36-50	Mulier peccatrix c.56
	6. 逐魔諭異端 마귀를 쫓아 이단을 깨우치다	막 3:20-30; 마 12:22-37; 눅 11:14-23	Damon. caec. & mut. c.57
7. 論疑眞主之罪 참 주를 의심하는 죄를 논하다	마 12:38-45; 눅 11:29-36, 24-26	Signum Ioniae c.58	

	8. 論順主者爲親 주를 따르는 자가 가족이라고 논하다	눅 11:27-28; 눅 11:8-35; 마 13:46-50; 막 3:31-35	Exclamatio mulier c.59
	9. 播種喻 씨 뿌리는 비유	마 13:1-9; 막 4:1-9; 눅 8:4-8	Parabola seminantis c.60
		막 4:10-20; 마 13:10-23; 눅 8:9-15[등불]; 막 4:21-25; 눅 8:16-18	Explicatio seminum. c.61
	10. 天國四喻 천국의 네 비유	마 13:24-35; 막 4:26-34	Parab. ziz. sem. sinap. ferm. c.62
	11. 求天國三喻 천국에 대한 세 비유	마 13:36-52	Expl. ziz. Thes. Marg. Sag. c.63
	12. 晦迹本鄉 고향에서 행적을 드러 내지 않다	마 13:53-58; 눅 4:16-30; 막 6:1-6a	Nazareth. c.64.
	13. 遣使傳教定規 제자를 보내 전도 하게 하고 규정을 정하다	눅 8:1-3, 9:1-5 막 6:6b-11; 마 9:35-10:15	Missio Apostolorum. c.65.
	14. 諭宗徒傳道耐苦 제자에게 전도 할 때 고난을 견디라고 깨우치다	마 10:16-42; 마 11:1; 막 6:12-13; 눅 9:6	Praedicio tolerandorum. c.66.
	없음	막 6:21-29; 마 14:6-12	Decollatio Ioannis. c.67
	15. 五餅二魚餉五千人 빵 다섯과 물 고기 둘로 오천 명을 먹이다	마 14:13-15; 눅 9:10-12; 막 6:30-36; 요 6:1-9	Revercio Apostolorum. c.68.
		마 14:16-21; 막 6:37-44; 눅 9:13-17; 요 6:10-14	Quinque panes. c.69
제사권	1. 日擗撒爾步海聖蹟 게네사렛에서 바다를 걷는 이적	요 6:15-21; 마 14:22-36; 막 6:45-56	Iesus super mare. c.70
	2. 論天糧指己聖體 하늘 양식이 자신의 거룩함 몸이라고 논하다	요 6:22-71	Panis Coelestis. c.71
	3. 論污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논하다	요 7:1; 마 15:1-20; 막 7:1-23	Illotae manus c.72
	4. 低落聖蹟 두로에서의 이적	막 7:24-30; 마 15:21-28	Chananaea. c.73
	5. 加理勒亞聖蹟 갈릴리에서의 이적	막 7:31-37; 마 15:29-31	Septem panes. c.74
	6. 七餅數魚給數千人 빵 일곱과 물 고기 몇으로 수천 명에게 배풀다	막 8:1-10; 마 15:32-39	
	7. 論宗徒防異端 제자에게 이단을 막으라고 논하다	막 8:11-21; 마 16:1-12	Fermentum Pharifsaeorum. c.75
	8. 白撒衣達救瞽 벧새다에서 소경을 고치다	막 8:22-26	

9. 預言受難復活 수난과 부활을 예언하다	막 8:27-33; 마 16:13-23; 눅 9:7-9, 18-22	Quis Chistus c.76	
	막 8:34-9:1; 마 16:24-28; 눅 9:23-27	Ferenda Crux c.77	
10. 大博爾山顯聖容 다볼산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다	눅 9:28-36; 막 9:2-13; 마 17:1-13; 요 1:14	Transfiguratio c.78	
11. 下山驅魔再言受難復活 산에서 내려와 귀신을 쫓고 다시 수난과 부활을 말하다	눅 9:37-43a; 막 9:14-27; 마 17:14-18	Puer damoniacus c.79.	
	막 9:30-32; 마 17:19-23; 눅 9:43b-45	Didrachma c.80	
12. 魚口取錢完稅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어 세금을 내다	마 17:24-27		
13. 抱孩論譙 아이를 안고 꾸짖다	눅 9:46-50; 막 9:33-50; 마 18:1-14	Quis maior c.81.	
14. 論赦人罪責 사람의 죄와 허물의 용서를 논하다	마 18:15-35	Condonandum c.82	
15. 撒麻利亞愈十癩 사마리아에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다	마 19:1a; 막 10:1a; 요 7:2-10, 눅 9:51-56; 17:11-19	Decem Leprosi. c.83	
16. 難期未至反化捕者 수난의 시기가 이르지 않았을 때 도리어 잡으려는 자를 감화시키다	요 7:11-53	Scoenopegia. c.84	
17. 反難異端赦罪婦 이단을 도리어 꾸짖고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다	요 8:1-11	Adultera. c.85.	
18. 自證眞主 스스로 참 주임을 논증하다	요 8:12-30		
19. 有罪者爲罪之役 죄 있는 자가 죄의 종이다	요 8:31-59	Seruitus peccati. c.86	
20. 胎瞽得明証主 나면서부터 눈 먼 자가 눈 뜰을 얻어 주를 증언하다	요 9:1-41	Coecus natus c.87	
21. 牧羊喻 목양의 비유	요 10:1-21	Verus Pastor c.88	
제오권	1. 七十二徒行教復命得訓 72제자가 가르친 대로 행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깨우침을 얻다	눅 10:1-24; 마 11:20-30	Missio Discipulorum. c.89
	2. 論愛人 이웃 사랑을 논하다	눅 10:25-37	Samaritanus. c.90
	3. 賢女延主得訓 지혜로운 여인이 주에 가까이 있어 가르침을 얻다	눅 10:38-42	Martha. Oratio c.91
	4. 論禱主 주께 기도하는 것을 논하다	눅 11:1-13	
	없음	눅 11:37-54	Prandium Pharisaei c.92

5. 論積天財及守貞防死候 하늘에 재화를 쌓고 충정을 지키고 죽음을 대비하라고 논하다	눅 12:13-34	Nec mors, nec egestas timenda. c.93.
6. 喻主恩寬容亟宜改圖 주의 은혜와 관용이 크므로 회개하고 헤아려야 한다고 비유로 깨우치다	눅 12:35-13:9	Seruus fidelis c.94.
7. 瞻禮日伸僕者 안식일에 굽은 자를 펴다	눅 13:10-21	Mulier contracta c.95
8. 哀都人 도성의 사람들을 애도하다	눅 13:22-35	Porta angusta c.96
9. 瞻禮日救蠱者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다	눅 14:1-6	Hydropicus c.97
10. 赴宴訓賓主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을 혼계하다	눅 14:7-14	
11. 以宴論天國 잔치를 들어 천국을 논하다	눅 14:15-24	
12. 論輕世 세상을 가벼이 여기라고 논하다	눅 14:25-33	Encoenia. c.98
13. 自證眞主渡河以居 스스로 참 주인임을 논증하고 강을 건너 머무르다	요 10:22-42; 마 19:1-2; 막 10:1	
14. 賢王請耶穌 현명한 왕이 예수를 초청하다	없음	없음
15. 論罪人可矜 죄인을 불쌍히 여길 것을 논하다	눅 15:1-10	Ouis. Drachma. c.99
16. 論蕩子改過 탕자가 잘못을 회개한 것에 대해 논하다	눅 15:11-32	Filius Prodigus. c.100
17. 論輕財忠主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주께 충성할 것을 논하다	눅 16:1-17	Villicus. c.101.
18. 論夫婦 부부에 대해 논하다	마 19:3-12; 막 10:2-12; 눅 16:18	Matrimonium. c.102.
19. 論貧善富惡死後殊報 가난하나 선한 자와 부유하나 악한 자가 죽은 다음에 제각기 보응을 받는 것을 논하다	눅 16:19-31	Epulo. c.103.
20. 訓諸徒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다	눅 17:1-10	Varia documenta. c.104
21. 隱示天國臨格 천국이 다가오는 방식을 은밀히 보여 주다	눅 17:20-37	
22. 論禱主貴懇而謙 주께 기도할 때 간절하고 겸손하게 바랄 것을 논하다	눅 18:1-14 눅 18:15-17; 마 19:13-15;	Oratio & Humilitas c.105
23. 因孩示訓 아이를 들어 가르치다	막 10:13-16	

	24. 論舍財以得天國 천국을 얻기 위해 재산을 버리라고 논하다	막 10:17-31; 눅 18:18-30; 마 19:16-30	Adolescens diues. c.106
	25. 論天賞 하늘의 상을 논하다	마 20:1-18	Operarij c.107.
	26. 伯大尼亞起死者于墓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다	요 11:1-46	Lazarus c.108
제 육 권	1. 異學妬謨耶穌 이단 학사가 예수 를 시기하여 모의하다	요 11:47-57	Consilium primum. c.109
	2. 途中預言受難 길을 가다가 수난 을 미리 말하다	마 20:17-19; 눅 18:31-34; 막 10:32-34	Filij Zebedaei. c.110
	3. 論訓二徒求尊位者 두 제자가 높 은 자리를 구하는 것에 논하여 깨 우치다	마 20:20-28; 막 10:35-46a	
	4. 葉禮閣開曠 여리고에서 눈 먼 자 를 뜨게 하다	눅 18:35-43	Iericho. c.111.
	5. 化富者散財 부자를 감화하여 재 산을 나누게 하다	눅 19:1-10	
	6. 喻天賞計功 하늘의 상으로 공적 을 헤아림을 비유로 깨우치다	눅 19:11-28	
	7. 葉禮閣再開三曠 여리고에서 다시 세 눈 먼 자를 뜨게 하다	마 20:29-34; 막 10:46-52	
	8. 宴中微示受難 잔치 중에 수난을 암시하다	요 12:1-11; 막 14:3-9; 마 16:6-13	Coena Bethaniae. c.112.
	9. 入都城發嘆 도성에 들어가 탄식 하다	눅 19:29-44; 요 12:12-19; 막 11:1-10; 마 21:1-9	Rami palmarum c.113.
	10. 再淨都城聖殿 도성 성전을 다시 정화하다	막 11:11a, 15-18; 마 21:10-16; 눅 19:45-46	Eiectio secunda e templo. c.114
	11. 都城聖跡 도성에서의 이적	막 11:18; 눅 19:47; 마 21:14-16	
	12. 迫言受難 때가 임박하여 수난을 말하다	요 12:20-50; 막 11:11b; 마 21:17	Gentiles. c.115.
	13. 都城罰樹警人 도성에서 나무를 벌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다	막 11:12-14, 19; 마 21:18-19	Ficulnea. c.116
	14. 論宗徒信主赦人 제자에게 주를 믿고 사람을 용서하라고 논하다	막 11:20-26; 마 21:20-22	
	15. 警異端疑主 이단이 주를 의심하 는 것을 경계하다	눅 20:1-8; 막 11:27-33; 마 21:23-32	In qua potestate c.117
	16. 警異端害主 이단이 주를 해치는 것을 경계하다	눅 20:9-19; 막 12:1-12; 마 21:33-46	Vinea locata c.118.
	17. 警異端昧主 이단이 주에 대해 무 지한 것을 경계하다	마 22:1-14	Nuptiae regiae c.119

	18. 窮異端貢賦詰 이단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공격할 때 궁지에 몰아 넣다	막 12:13-17; 마 22:15-22; 눅 20:20-26	Tributum soluendum. c.120
	19. 與異端論復活 이단과 부활을 논하다	마 22:23-33; 막 12:18-27; 눅 20:27-40	Sadducae. c.121
	20. 論異端認主 이단이 주를 인정할 것을 논하다	마 22:41-46; 막 12:28-37; 눅 20:40-44	Quaestiones c.122
	21. 論衆勿效務外者 군중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자를 본받지 말 것을 논하다	마 23:1-12; 막 12:38-40; 눅 20:45-47	
	없음	마 23:13-39	Comminationes. c.123
	22. 論貧者施與之功 가난한 자가 베푸는 공적에 대해 논하다	막 12:41-44; 눅 21:1-4	Euerrenda Ierusalem. c.124
	23. 預嘆都城將毀 도성이 파괴될 것을 미리 탄식하다	막 13:1-5a, 14-18; 눅 21:5-7, 20-24; 마 24:1-3a, 15-20	
	24. 預言審判世上前兆 심판 때 세상에 있을 조짐에 대해 미리 말하다	마 24:4b-8, 21-28, 9-14; 막 13:5-8, 19-23, 9-13; 눅 21:8-11, 12-19	Iudicij signa terrestia. c.125
	25. 預言審判天上前兆 심판 때 하늘에 있을 조짐에 대해 미리 말하다	막 13:24-32; 마 24:29-35; 눅 21:25-33	Signa caelestia. c.126
	없음	마 24:36-51; 막 13:32-37; 눅 21:34-38	Ignotus dies Iudicij. c.127
	26. 諭衆宜醒以候審判 군중에게 마땅히 깨어 있으면서 심판을 기다릴 것을 깨우치다	마 25:1-13	Decem Virgines. c.128
	없음	마 25:14-30	Talenta. c.129
	27. 審判重哀矜者 심판에 심히 애통할 자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	마 25:31-46	Iudicium c.130.
제칠권	1. 受難前夕行古禮 수난 전 저녁에 옛 예식을 행하다	눅 22:1-16; 마 26:1-5, 14-20; 막 14:1-2, 10-17	Venditio. Agnus. c.131.
	2. 濯足垂訓 발을 씻어 가르침을 베푼다	요 13:1-20	Lotio pedum c.132.
	3. 立聖體大禮 성체의 큰 예식을 세우다	마 26:26-28; 막 14:22-25; 눅 22:19-20	Eucharistia. c.133.
	4. 預言宗徒驚疑 제자들이 놀라고 의심할 것을 미리 말하다	요 13:21-32; 막 14:18-21; 마 26:21-25; 눅 22:21-30	Proditur Proditor. c.134
	5. 明指惡徒叛意 악한 제자의 배반하려는 뜻을 명확히 지적하다	요 13:33-38; 눅 22:31-37; 막 14:27-31; 마 26:31-35	Scandalizandi Apostoli c.135.

6. 訓慰宗徒爲別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위로하고 가르치다	요 14:1-31	Sermo post Coenam. c.136.
	요 15:1-27	Continuatio sermonis c.137
	요 16:1-33	Continuatio sermonis c.138
	요 17:1-26; 막 14:26; 마 26:30	Oratio. c.139
7. 囿中祈禱汗血 정원 가운데서 기도할 때 피땀[을 흘리다]	요 18:1; 눅 22:39-45; 마 14:36-46; 막 14:32-42	Hortus. c.140
8. 仆衆還耳受執 무리를 쓰러뜨리고 귀를 고치시고 체포를 당하다	요 18:2-12; 막 14:43-51; 마 26:47-56; 눅 22:47-53	Comprehensio. c.141
9. 解亞納及蓋法受辱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압송되어 모욕을 받다	요 18:13-23; 눅 22:54-55; 마 26:57-68; 막 14:53-65	Sententia Iudaeorum. c.142
10. 徒三不認主 제자가 세 번 주를 부인하다	마 26:69-75; 눅 22:54-62; 막 14:66-79; 요 18:17-18, 25-27	Negationes Petri. c.143
11. 惡徒失望而死 악한 제자가 실망해 죽다	눅 22:66-23:1; 막 15:1; 마 27:1-2[유다]; 마 27:3-10	Confirmatio sentetiae. c.144
12. 解比辣多不辨 빌라도에게 압송되었으나 말하지 않다	요 18:28-38; 눅 23:2-5; 막 15:2-5; 마 27:11-14	Accusationes. c.145
13. 解黑羅得不對 헤롯에게 압송되었으나 대답하지 않다	눅 23:6-12	
14. 比辣多計取衆赦不得 빌라도가 군중의 사면을 얻으려고 했으나 얻지 못하다	눅 23:13-23; 막 15:6-15a; 요 18:39-40; 19:1; 마 27:15-18, 20-23	Flagellatio. c.146
15. 擊鞭苦辱 채찍으로 치는 고욕	마 27:27-36a; 요 19:2-3; 막 15:16-20a	Coronatio. Condemnatio. c.147
16. 茨冠敝袍竹杖苦辱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거리] 옷을 입히고 죽장을 들리는 고욕		
17. 比辣多勤息衆怒不得 빌라도는 군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으나 얻지 못하다	요 19:4-12; 마 27:19,24-26; 요 19:13-16; 막 15:20b; 눅 23:24-25	Crucifixio. c.148
18. 比辣多被逼判死 빌라도가 위협을 받아 사형으로 판결하다		
19. 負十字架行 십자가를 지고 가다	요 19:17-22; 막 15:21-26; 마 27:32-37; 눅 23:26-20	Crucifixio. c.148
20. 釘十字架上 십자가 위에 박히다		
21. 懸十字架上 십자가 위에 달리다	요 19:23-24; 막 15:24, 29-32; 눅 23:34b-37, 39-43; 마 27:35-36, 39-44	Improperia Christi. c.149

	22. 十字架七言 십자가 위에서의 칠언	요 19:25-29a; 막 15:33-37; 눅 23:44-45a, 46; 마 27:45-50	Iesu pendente viuo. c.150
	23. 死被鎗傷 죽은 후에 창으로 찢리다	마 27:51-56; 눅 23:45b, 47-49; 막 15:38-41; 요 19:31-37	Iesu pendente mortuo. c.151
	24. 萬物哀主 만물이 주를 애도하다	요 19:38-42; 막 15:42-47;	
	25. 殮葬 무덤에 묻히다	요 23:50-56; 마 27:57-61	
	26. 兵防耶穌之墓 군병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	마 27:62-66	Sepultura. c.152.
제 팔 권	1. 耶穌復活 예수의 부활	막 16:1-8; 마 28:1-8, 11-15; 눅 24:1-8,12; 요 20:1-10	Resurrectio c.153
	2. 一見身于聖母 처음으로 성모에게 나타나다	없음	없음
	3. 二見身于瑪大肋納 三見身于諸聖女 두 번째로 막달라 여인에게 나타나다. 세 번째로 여러 거룩한 여인에게 몸을 보이다	막 16:9-11; 요 20:11-18; 마 28:9-10; 눅 24:9-11	Apparitio Prima. c.154
	4. 四見身于宗徒 네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다	요 20:1-10	Resurrectio c.153
	5. 五見身于二聖徒 다섯 번째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다	막 16:12-13; 눅 24:13-35	Apparitio Secunda. c.155
	6. 六見身于十宗徒 여섯 번째로 열 제자에게 나타나다	눅 24:37-43; 요 20:19-23	Apparitio Tertia. c.156
	7. 七見身于十一宗徒 일곱 번째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다	요 20:24-31	Apparitio Quarta. c.157.
	8. 八見身于宗徒等七人 여덟 번째로 제자들을 포함한 일곱 명에게 나타나다	요 21:1-24	Apparitio Quinta. c.158.
	9. 在世四十日 세상에 사십 일 간 머무르다	마 28:16-18; 막 16:15-18; 눅 24:44-48	Apparitio Sexta, & Sep. c.159.
	10. 升天 하늘에 오르다	눅 24:49-53; 막 16:19-20; 요 21:25	Ascensio. c.160
	11. 天神諭散衆聖 천사가 깨우쳐 못 성도를 흠뜨리다	행 1:9-11	
	12. 升天聖所 승천 성소	없음	없음
	13. 聖神降臨 성령이 강림하다	[행 1:12-14; 2:1-4]	없음
	14. 宗徒數教萬方 제자들이 만방에 가르침을 펼치다	[행 2:5-14, 37-42]	없음

『언행기략』의 항목은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한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선 한 항목이 세분화되거나 여러 항목이 한 항목으로 합쳐지기도 하고, 서두나 마지막이 다른 항목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특히 『언행기략』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의 생애』보다 세분하여 다루었고, 『우리 주 예수의 생애』가 한 항목으로 다룬 예수의 부활(c. 153)을 두 항목으로 나누고(VIII.1, VIII.4),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찾아간 이야기(VIII.4)를 성모에게 현현한 사건(VIII.2)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건(VIII.3) 다음에 배열하여 큰 차이를 보여준다. 『언행기략』의 수난과 부활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다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²²⁾

예수의 공생애 부분에서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항목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한 항목이 『언행기략』에 여러 항목으로 나오는 경우

-목자들의 방문과 예수의 할례(c.9): I.8(天神降諭靈蹟疊見) + I.9(遵古禮定聖名)

-사천 명을 먹이심(c.74): IV.5(加理勒亞聖蹟 + IV.6(七餅數魚給數千人)

-간음한 여인의 용서(c. 85): IV.17(反難異端赦罪婦) + IV.18(自證眞主)

-수종병자의 치유(c. 97): V.9(瞻禮日救蠱者) + V.10(赴宴訓賓主) + V.11(以宴論天國)

-수전절(c. 98): V.12(論輕世) + V.13(自證眞主渡河以居)

-여러 이야기(c.104): V.20(訓諸徒) + V.21(隱示天國臨格)

-기도와 겸손(c.105): V.22(論禱主貴懇而謙) + V.23(因孩示訓)

-세배대의 아들들의 요구(c.110): VI.2(途中例言受難) + VI.3(論訓二徒求尊位者)

-여리고(c.111): VI.4(葉禮閣開牖) + VI.5(化富者散財) + VI.6(喻天賞計功) + VI.7(葉禮閣再開三牖)

-두 번째 성전 정화(c.114): VI.10(再淨都城聖殿) + VI.11(都城聖跡)

22) 최초의 중문 수난 본문이요 조화본문인 『천주야소수난시말』(天主耶穌受難始末)에 대해서는 서원모, 한승일 “『천주야소수난시말』(天主耶穌受難始末) 연구”, 『장신논단』 50:1 (2018), 157-193을 보라. 『천주야소수난시말』과 『언행기략』의 수난 이야기와 장 바세(Jean Basset, 1662-1707)와 서약한(徐若翰)의 공저로 알려진 『사사유편야소기리사독복음지회편』(四史攸編耶穌基利斯督福音之會編)의 수난 이야기를 비교하면 중국에 소개된 조화본문으로 된 수난 이야기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 무화과나무 저주(c.116): VI.13(都城罰樹警人) + VI.14(論宗徒信主赦人)
- 다윗의 자손 논쟁과 서기관 책망(c.122): VI.20(論異端認主) + VI.21(論衆勿效務外者)
- 과부 헌금과 예루살렘 멸망 예언(c.124): VI.22(論貧者施與之功) + VI.23(預嘆都城將毀)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내용상 구분이 되는 항목을 하나로 합쳐 다루었는데, 알레니는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가장 특이한 사례는 여리고 입성과 관련된 사건을 리치는 한 항목으로 처리했다면(c.111), 알레니는 시각 장애인 치유(VI.4), 삭개오(VI.5), 므나 비유(VI.6)와 세 명의 시각 장애인 치유(VI.7)를 모두 별개의 항목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도해로도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여러 항목을 하나로 제시했을 수도 있다. 리치의 『합일복음서』는 도해를 제외하고 『우리 주 예수의 생애』보다 더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병행본문뿐만 아니라 조화본문과 주해를 제시하여 리치의 학문적인 관심을 잘 보여 준다.

(2)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여러 항목이 『언행기략』에 한 항목으로 나오는 경우

- 세례자 요한의 사역(c.14)과 그리스도교의 세례(c.15): II.1(耶穌受洗示)
- 니고데모 방문(c.19)과 세례자 요한의 증언(c.20): II.7(尼閣得陸夜訪談道)
- 사마리아 여인(c.24) + 사마리아 사람들(c.25): II.8(西加爾乞水化人)
- 귀신들린 사람(c.29) + 시몬의 장모 치유(c.30) + 갈릴리 순회(c.31): II.12(葛發翁諸聖蹟)
- 거라사 광인(c.34) + 군대 귀신(c.35): II.15(驅魔入豕)
- 중풍병자(c.36) + 죄 용서/치유(c.37): II.16(起癱證赦)
- 혈루증 여인(c.40) + 야이로의 딸(c.41): II.18(葛發翁又救淋者死者瞽者瘡者)
- 산상수훈(c.46~c.52): III.1(山中聖訓)
- 씨 뿌리는 자의 비유(c.60) + 설명(c.61): III.9(播種喻)
- 제자들의 복귀(c. 68) + 오병이어(c. 69): III.15(五餅二魚餉五千人)
- 베드로의 고백(c.76) + 제자의 길(c.77): IV.9(預言受難復活)

리치는 같은 사건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세분하여 도해로 나타내려고 했다면, 알레니는 한 항목으로 묶어 제시했다. 특히 산상수훈의 경우, 리치는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제시했지만 제목은 모두 동일한데(Continuatio sermonis), 알레니는 이들을 모두 한 항목으로 묶어 제시했고, 내용적으로 구분되는 한센병자 치유(마 8:1-4)는 가버나움 이적에 함께 포함시켰다.²³⁾

(3) 『우리 주 예수의 생애』에 포함되지만, 『언행기략』에서 생략된 사건

-한센병자 치유(눅 5:12-16; 막 1:40-45):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갈릴리 순회 전도(Circuitio Galilaeae c. 31)에 포함되지만, 『언행기략』 II.12(葛發翁諸聖蹟)에는 나오지 않는다. 리치는 또 하나의 한센병자 치유(마 8:1-4)를 산상수훈과 연결시켜 제시하는데(c.52), 아마도 알레니는 이 한센병자 치유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산상수훈 바로 다음의 가버나움 이적에 포함시켰다고 생각된다(III.2 葛發翁又聖蹟).

(4)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언행기략』의 항목이 다른 사건

-열두 제자 선택(눅 6:13-19; 막 3:13-19; 마 5:1)과 복 있는 자(눅 6:20-26; 마 5:2-16)는 리치에선 c.46(Sermo Domini in monte)으로 합쳐 나오지만, 『언행기략』에선 II.23(立十二宗徒), III.1(山中聖訓)로 분리되는데, 알레니는 예수의 산상수훈만 모아서 제시하고자 했다.

-한센병자 치유(마 8:1-4): 리치는 산상수훈 마지막 항목(Continuatio sermonis, c.52) 끝에 배열하지만 알레니는 가버나움의 이적(III.2 葛發翁又聖蹟) 서두에 넣었는데, 이는 산상수훈만 모아서 제시하고자 하는 알레니의 의도와 연결된다.

-믿음의 능력과 수난과 부활 예언(막 9:30-32; 마 17:19-23; 눅 43b-45): 리치는 성전세 납부 항목(Didrachma c.80)에 포함시켰지만, 알레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IV.11 下山驅魔再言受難復活) 뒤에 배열하고 성전세 납부 항목(IV.12 魚口取錢完稅)과 분리시켰는데, 알레니의 배치가 리치보다 자연스럽다.

23) 아래 (4)를 보라. 수난 이야기에 포함되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최후의 만찬 이후 설교와 기도도 리치는 네 항목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c.136-c.139), 알레니는 한 항목으로 묶었다(VII.6 訓慰宗徒爲別).

3.1.2. 예수 사건의 배열

그렇다면 조화복음서로서 『언행기략』은 예수 사건을 어떻게 배열했는가? <표 1>이 보여 주듯, 탄생 이야기와 수난과 부활 이야기를 제외한 공생애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언행기략』의 예수 사건 배열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언행기략』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해 주기 때문에, 복음서 본문을 상세하게 배열한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배열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언행기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공생애 사역에서 리치는 공관복음에 따라 세례자 요한의 사역(c.14), 예수의 세례(c.15)와 시험(c.16)을 언급한 다음, 요한복음에 따라(요 1:15-36) 세례자 요한의 증언(c.17), 첫 제자들을 부르심(c.18), 가나의 결혼잔치(c.19), 첫 번째 성전 정화(c.20), 니고데모 방문(c.21), 요한의 증언(c.22)을 언급한다. 이어서 리치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씀을 근거로(막 1:14; 마 4:12), 요한의 투옥(c.23)을 먼저 삽입하고,²⁴⁾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c.24-25)을 배열했다. 갈릴리 사역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c.26)로 시작해서,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심(c.27-28), 가버나움에서의 귀신들린 자와 시몬의 장모의 치유(c.29-30), 갈릴리 순회 사역(c.31)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8장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c.32)을 시작으로 갈릴리 사역을 서술하는데, 풍랑을 잠재움(c.33), 무덤가의 귀신들린 사람의 치유(c.34-35), 중풍병자 치유(c.36), 마태를 부르심(c.38), 금식 논쟁(c.39), 혈루병 여인(c.40)과 야이로의 딸과 소경과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c.41)가 나온다. 이어서 요한복음에 따라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유대인들과 논쟁한 이야기(c.42-43)가 삽입되고, 공관복음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과 치유(c.44-45)가 연결된다. 그 다음에는 무리에 대한 사역(c.45), 열두 제자 선택, 산상수훈(평지 설교, c.46-52)이 나온다.

산상수훈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따라 한센병자 치유(c.52)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신하 치유(c.53)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따라 나인성 이적(c.54), 요한의 질문(c.55), 죄 많은 여인의 용서(c.56)가 이어진다. 그 다음에는 바알세

24) 『언행기략』에는 나오지 않는다.

불 논쟁(c.57)과 예수의 가족(c.59)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설명(c.60-61)이 나오는데, 이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와 해설(c.62-63)이 나오고, 마태복음을 따라 고향 사람의 배척(c.64)이 나오고 마가복음을 따라서 제자들의 파송(c.65-66), 요한의 처형(c.67), 오병 이어(c.68-69), 바다를 걸으심(c.70)이 나오고 요한복음의 하늘 양식 이야기(c.71)가 삽입된 다음, 다시 마가복음을 따라 정결례 논쟁(c.72), 가나안 여인(c.73),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와 사천 명을 먹이심(c.74), 바리새인의 누룩 경계와 벧새다 소경 치유(c.75), 베드로의 고백(c.76-77), 예수의 변모와 축사(c.77-78)가 나오고, 이어서 마태복음을 따라 성전세 지불(c.80), 어린 아이 영접(c.81), 죄의 용서(c.82)가 나온다.

이후에는 유대 지역으로의 이동(마 19:1a, 막 10:1a)을 언급하면서 사마리아에서 문둥병자의 치유(c.83)가 나온 후 예수의 초막절 행적과 가르침이 나온다(요 7:11-10:21, c.84-88). 이어서 72제자의 파송(c.89)과 함께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이 배열되는데(눅 10:1-18:17, c.90-105), 잃은 양의 비유(눅 15:1-10, c.99) 전에 예수의 수전절 설교(요 10:22-42, c.98)와 누가복음 16:18을 기초로 결혼에 대한 가르침(마 19:3-12; 막 10:2-12, c.102)이 삽입되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눅 18:9-14, c.105) 다음에는 공관복음 병행 자료인 어린 아이들의 영접(c.105)과 부자 관리 이야기(c.106)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특수 자료인 품꾼의 비유(마 20:1-18, c.107)와 요한복음 특수 자료인 나사로의 부활(요 11:1-57, c.108-109), 공관복음 병행 자료인 수난 예언, 마태와 마가 병행 자료인 세배대의 아들들의 요청이 한 항목(c.110)으로 나온다.

이어서 나오는 여리고 성과 관련된 사건들을 리치는 한 항목(c.111)으로 묶어 서술하는 반면, 알레니는 네 항목(VI.4-7)으로 나누어 서술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럼에도 리치와 알레니는 모두 이 사건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했으며, 사건 배열 순서에서 양자는 완전히 일치한다. 그 다음에는 베다니 향유 부음(c.112), 예루살렘 입성(c.113), 두 번째 성전 정화와 성전에서의 치유(c.114), 그리스인과의 만남(c.115), 무화과나무의 저주(c.116)가 이어지고, 유대인과의 논쟁들이 다뤄지는데, 주님의 권세(c.117),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c.118), 혼인 잔치 비유(c. 119), 과세 논쟁(c.120), 부활 논쟁(c.121), 가장 큰 계명과 다윗의 자손(c.122), 율법학자들에 대한 책망(c.123)의 순서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과부의 헌금과 도성 파괴(c.124), 심판 때 세상에 나타날 조짐(c.125)과 하늘에 나타날 조짐(c.126),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c.127)는 가르침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c.128-130)가 나온다.

3.2. 조화본문의 구성 방법 측면

이제 실제적으로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가 어떤 식으로 병행본문을 하나로 연결했는지를 비교해 보자. 여기서는 네 가지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공생애의 첫 항목인 예수의 수세(II.1 耶穌受洗示表)에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Ostentio Ioannis. c.14) 항목을 중심으로 리치의 조화본문의 구조를 소개하고 『언행기략』과 비교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러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산상수훈/평지 설교(III.1; c.46-c.52)와 심판 예언(VI.23-25; c.124-c.127)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거라사 광인의 치유(II.15; c.34-c.35) 등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의 관계를 밝히고, 알레니가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참조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2.1. 세례자 요한의 설교(II.1 耶穌受洗示表; Ostentio Ioannis. c.14)

『언행기략』에서 공생애의 첫 항목인 예수의 수세는 실제로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c.14)와 예수의 수세(c.15)가 합쳐진 본문이다. 여기서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c.14)를 중심으로 리치의 조화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언행기략』 본문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 리치는 마가복음 1장(1-8절), 누가복음 3장(1-18절), 요한복음 1장(6-8절)을 세 단으로 배열하고, 요한복음 1장 하단에 마태복음 3장(1-12절)을 배열했다. 또한 리치는 병행본문을 내용에 따라 요한의 등장(막 1:1-6; 눅 3:1-6; 요 1:6-8; 마 3:1-6), 요한의 설교(눅 3:7-14; 마 3:7-10), 요한과 그리스도의 차이(마 1:7-8; 눅 3:15-18; 마 3:11-12)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 병행본문에는 이탤릭체로 표기된 부분과 숫자와 알파벳 문자들이 나오는데, 이는 병행본문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 읽어야 할지를 알려 주는 방법이였다. <그림 2>를 도해화한 <그림 3>은 리치의 본문 구성을 잘 보여 준다.

<그림 2>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세례자 요한의 등장(Ostensio Ioannis, c.14) 본문



<그림 3> Ostensio Ioannis c.14의 본문 도해

* [] 표시된 로마자와 숫자는 읽는 순서를 표시함.

* 『우리 주 예수의 생애』 본문에는 없지만, 절수를 위 첨자로 표기함.

MAR. I.	LVC. III.	IOAN. I.
<p>a. initium evangelii Iesu Christi Filii Dei ² sicut scriptum est in Esaia propheta ecce mitto angelum meum ante faciem tuam qui praeparabit viam tuam ³ vox clamantis in deserto parate viam Domini rectas facite semitas eius h ⁴ fuit Iohannes in deserto baptizans et praedicans baptismum paenitentiae in remissionem peccatorum ⁵ l et [egrediebatur] ad illum n omnis Iudaeae regio et Hierosolymitae universi p et baptizabantur ab illo in Iordane flumine confitentes peccata sua ⁶ et erat Iohannes vestitus pilis cameli et zona pellicia circa lumbos eius et lucustas et mel silvestre edebat</p>	<p>b. anno autem quintodecimo imperii Tiberii Caesaris procurante Pontio Pilato Iudaeam tetrarcha autem Galilaeae Herode Philippo autem fratre eius tetrarcha Itureae et Trachonitidis regionis et Lysania Abilinae tetrarcha ² sub principibus sacerdotum Anna et Caiapha f factum est verbum Dei super Iohannem Zacchariae filium in deserto ³ k et venit in omnem regionem Iordanis praedicans baptismum paenitentiae in remissionem peccatorum ⁴ sicut scriptum est in libro sermonum Esaiae prophetae vox clamantis in deserto parate viam Domini rectas facite semitas eius ⁵ omnis vallis implebitur et omnis mons et collis humiliabitur et erunt prava in directa et aspera in vias planas ⁶ et videbit omnis caro salutare Dei</p>	<p>c ⁶ fuit homo missus a Deo cui nomen erat Iohannes ⁷ hic venit in testimonium ut testimonium perhiberet de lumine ut omnes crederent per illum ⁸ non erat ille lux sed ut testimonium perhiberet de lumine. MAT.III. d in diebus autem e illis venit Iohannes Baptista praedicans in deserto g Iudaeae ² et i dicens paenitentiam agite adpropinquavit enim regnum caelorum ³ hic est enim qui dictus est per Esaia prophetam dicentem vox clamantis in deserto parate viam Domini rectas facite semitas eius ⁴ ipse autem Iohannes habebat vestimentum de pilis camelorum et zonam pelliciam [circa lumbos suos] esca autem eius erat lucustae et mel silvestre ⁵ m tunc exiebat ad eum [Hierosolyma et omnis Iudaea] ⁶ et omnis regio circa Iordanem et baptizabantur in Iordane ab eo confitentes peccata sua</p>
<p>quae exiebant ut baptizarentur ab ipso [genimina] viperarum quis [ostendit] vobis fugere a ventura ira ⁸ facite ergo fructus dignos paenitentiae 6[5]. et ne coeperitis dicere patrem habemus Abraham dico enim vobis quia potest Deus de lapidibus istis suscitare filios Abrahae ⁹ iam enim securis ad radicem arborum posita est omnis ergo arbor non [faciens] fructum exciditur et in ignem mittitur ¹⁰ 7 et interrogabant eum turbae dicentes quid ergo faciemus respondens autem dicebat illis qui habet duas tunicas det non habenti et qui habet escas similiter faciat ¹² venerunt autem et publicani ut baptizarentur et dixerunt ad illum magister quid faciemus ¹³ at ille dixit ad eos nihil amplius quam quod constitutum est vobis faciatis ¹⁴ interrogabant autem eum et milites dicentes quid faciemus et nos et ait illis neminem conculcatis neque calumniam faciatis et contenti estote stipendiis vestris</p>	<p>2 ⁷ dicebat ergo 3 ad turbas</p> <p>a ¹⁵ existimante autem populo et cogitantibus omnibus in cordibus suis de Iohanne ne forte ipse esset Christus ¹⁶ respondit Iohannes c dicens omnibus ego quidem aqua baptizo vos venit h autem fortior me cuius non sum dignus solvere corrigiam calciamentorum eius ipse vos</p>	<p>1 ⁷ videns autem multos Pharisaeorum et Sadducaeorum venientes ad baptismum suum [dixit eis] 4 progenies viperarum quis demonstravit vobis fugere a futura ira ⁸ facite ergo fructum dignum paenitentiae ⁹ et ne velitis dicere 6 intra vos patrem habemus Abraham dico enim vobis quoniam potest Deus de lapidibus istis suscitare filios Abrahae ¹⁰ iam enim securis ad radicem arborum posita est omnis ergo arbor quae non facit fructum bonum exciditur et in ignem mittitur</p>
<p>b ⁷ et praedicabat dicens g venit fortior me post me l cuius non sum dignus procumbens solvere corrigiam calciamentorum n eius ⁸ ego e baptizavi vos aqua ille vero baptizabit vos Spiritu Sancto</p> <p>baptizabit in Spiritu Sancto et igni ¹⁷ cuius ventilabrum in manu eius et [purgabit] aream suam et congregabit triticum p in horreum suum paleas autem comburet igni inextinguibili ¹⁸ multa quidem et alia exhortans evangelizabat populo</p>	<p>d ¹¹ ego quidem vos f baptizo in aqua in paenitentiam i qui autem k post me venturus est fortior me est cuius non sum dignus m calciamenta o portare ipse vos baptizabit in Spiritu Sancto et igni ¹² cuius ventilabrum in manu sua et permundabit aream suam et congregabit triticum suum in horreum paleas autem comburet igni inextinguibili</p>	<p>d ¹¹ ego quidem vos f baptizo in aqua in paenitentiam i qui autem k post me venturus est fortior me est cuius non sum dignus m calciamenta o portare ipse vos baptizabit in Spiritu Sancto et igni ¹² cuius ventilabrum in manu sua et permundabit aream suam et congregabit triticum suum in horreum paleas autem comburet igni inextinguibili</p>

리치는 서문에서 병행본문을 어떻게 하나로 엮는지를 알려 주는데, 이탤릭체는 조화본문에서 생략할 부분을 나타내고, 숫자와 알파벳 소문자는 조화본문을 만드는 순서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한 본문은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언행기략』의 본문과 비교되었다. 이렇

게 볼 때, 『언행기략』은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세례자 요한 항목의 세 가지 내용(요한의 등장, 요한의 설교, 요한의 증언) 중 첫 번째 내용만 다루고 바로 예수의 수세로 넘어간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세례자 요한의 등장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언행기략』은 『우리 주 예수의 생애』에 포함된 많은 내용을 생략했다. 이는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복음서 병행본문을 하나로 조합하면서 복음서 본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려고 시도한 반면, 『언행기략』은 예수 사건의 개요를 요약적으로 서술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표 2> 세례 요한의 증언 비교

	『우리 주 예수의 생애』 (리치의 제안대로 조화본문 구성/ 밑줄은 『언행기략』에서 번역된 부분)	『언행기략』
요 한 의 등 장	<p>a. <u>initium evangelii Iesu Christi Filii Dei</u> ² <u>sicut scriptum est in Esaia propheta ecce mitto angelum meum ante faciem tuam qui praeparabit viam tuam</u> ³ <u>vox clamantis in deserto parate viam Domini rectas facite semitas eius.</u> b [눅 3:1] <u>anno autem quintodecimo imperii Tiberii Caesaris procurante Pontio Pilato Iudaeam tetrarcha autem Galilaeae Herode Philippo autem fratre eius tetrarcha Itureae et Trachonitidis regionis et Lysania Abilinae tetrarcha</u> [눅 3:2] <u>sub principibus sacerdotum Anna et Caiapha</u> c [요 1:6] <u>fuit homo missus a Deo cui nomen erat Iohannes</u> [요 1:7] <u>hic venit in testimonium ut testimonium perhiberet de lumine ut omnes crederent per illum</u> [요 1:8] <u>non erat ille lux sed ut testimonium perhiberet de lumine.</u></p> <p>d [마 3:1] <u>in diebus autem e illis</u> f [눅 3:2] <u>factum est verbum Dei super Iohannem Zacchariae filium in deserto</u> g [마 3:1] <u>Iudaeae et</u> h [막 1:4] <u>fuit Iohannes in deserto baptizans et praedicans baptismum paenitentiae in remissionem peccatorum.</u> i [마 3:2] <u>dicens paenitentiam agite adpropinquavit enim regnum caelorum,</u> [마 3:3] <u>hic est enim qui dictus est per Esaia prophetam dicentem</u> [마 3:3=눅 3:4] <u>vox clamantis in deserto parate viam Domini rectas facite semitas eius</u> [눅 3:5] <u>omnis vallis implebitur et omnis mons et collis humiliabitur et erunt prava in directa et aspera in vias planas</u> ⁶ <u>et videbit omnis caro salutare Dei.</u></p>	<p>① 若翰野隱苦修。近三十年。 [부연] 요한이 들에 은거하며 고행으로 수행하여, 거의 서른 살에 이르렀다.</p> <p>② 至第伯略西國總王十有五祀。 [눅 3:1] 그는 서국[로마] 황제 디베료의 열다섯 해에 이르러</p> <p>③ 蒙天主示令。出山敷教。勸人痛改前愆。 [눅 3:2] 천주의 계시를 받아 [마 3:2] 산에서 나와 가르침을 펴고 사람들에게 이전의 잘못을 애통해하며 고칠 것을 권했다.</p> <p>④ 聖聞四達。通國出郊受誨。 [막 1:5] 성인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이르니, 온 나라 사람들이 들로 나와서 가르침을 받았다.</p>

	<p>k [눅 3:3] <u>et venit in omnem regionem Iordanis praedicans. l</u> [막 1:5] <u>Et m</u> [마 3:5] <u>tunc exiebat ad eum n</u> [막 1:5] <u>omnis Iudaeae regio et Hierosolymitae universi o</u> [마 3:6] <u>et omnis regio circa Iordanen p</u> [막 1:5] <u>et baptizabantur ab illo in Iordane flumine confitentes peccata sua et erat Iohannes vestitus pilis cameli et zona pellicia circa lumbos eius et lucustas et mel silvestre edebat.</u></p>	<p>⑤ 若翰巡游若而當河濱。即以水洗之。令其悔過自新。 [눅 3:3] 요한은 요단강 주변을 돌아다니며, [막 1:4] 물로 세례를 주어 그들에게 지난 일을 참회하고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했다.</p> <p>⑥ 蓋古經中先知依撒意亞。嘗預言降生事曰。遣我天神。在於爾前。預開爾道。野中呼聲。令人治主途正直曲徑也。 [막 1:2] 옛 경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일찍이 강생의 일에 대해 예언하여 이르되 ‘내가 사자(天神)를 보내 네 앞에 두리니 네 길을 미리 닦아 두리라. [막 1:3/눅 3:4/마 3:3]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닦고 굽은 길을 바르게 만들도록 했다.</p>
<p>요 한 의 설 교</p>	<p>1 [마 3:7] videns autem multos Phariseorum et Sadducaeorum venientes ad baptismum suum 2 [눅 3:7] dicebat [ergo] 3 [눅 3:7] ad turbas quae exiebant ut baptizarentur ab ipso. 4 [마 3:7] progenies viperarum quis demonstravit vobis fugere a futura ira? [마 3:8] facite ergo fructum dignum paenitentiae. et ne velitis 5 [눅 3:8] et ne coeperitis dicere 6 [마 3:9] intra vos patrem habemus Abraham dico enim vobis quoniam potest Deus de lapidibus istis suscitare filios Abrahae [마 3:10] iam enim securis ad radicem arborum posita est omnis ergo arbor quae non facit fructum bonum exciditur et in ignem mittitur 7 [눅 3:10] et interrogabant eum turbae dicentes quid ergo faciemus [눅 3:11] respondens autem dicebat illis qui habet duas tunicas det non habenti et qui habet escas similiter faciat [눅 3:12] venerunt autem et publicani ut baptizarentur et dixerunt ad illum magister quid faciemus [눅 3:13] at ille dixit ad eos nihil amplius quam quod constitutum est vobis faciatis [눅 3:14] interrogabant autem eum et milites dicentes quid faciemus et nos et ait illis neminem concutiatis neque calumniam faciatis et contenti estote stipendiis vestris</p>	
<p>요 한 의 증 언</p>	<p>a [눅 3:15] existimante autem populo et cogitantibus omnibus in cordibus suis de Iohanne ne forte ipse esset Christus [눅 3:16] respondit Iohannes b [막 1:7] et praedicabat c [눅 3:16] dicens omnibus d [마 3:11] ego quidem vos e [막 1:8] baptizavi f [마 3:11] baptizo in aqua in paenitentiam. g [막 1:7] venit h [눅 3:16] autem fortior me i [마 3:11] qui <i>autem</i> k [마 3:11] post me venturus est, 1 [막 1:7] cuius non sum dignus procumbens solvere corrigiam calciamentorum. m [마 3:11] calciamenta n [막 1:7] eius o [마 3:11] portare ipse vos baptizabit in Spiritu Sancto et igni. cuius ventilabrum in manu sua et permundabit aream suam et congregabit triticum suum p [눅 3:17] in horreum suum paleas autem conburet igni inextinguibili [눅 3:18] multa quidem et alia exhortans evangelizabat populo</p>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언행기략』을 비교해보면, 알레니는 리치의 제안대로 조화본문을 구성한 것 같지는 않다. 리치는 마가복음 1:1-3에서 시작하도록 제안하는데, 여기에는 이사야서 인용이 포함되었다(막 1:2-3). 세례자 요한의 사명에 대한 이사야서 인용은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리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사야서 인용(눅 3:4-6; 마 3:3)을 뒷부분에 다시 넣도록 제안했다.²⁵⁾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레니는 누가복음 3:1에서 시작하고 이사야서 인용을 뒤에 배치했는데(⑥), 실제 문구에서는 마가복음(1:2-3)을 사용했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④)과 요한의 요단강 부근의 활동(⑤)이 이사야 본문 인용(⑥)보다 앞선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리치의 배열 순서와 다르다. 이사야 본문 인용 이전에 요한의 참회에 대한 가르침을 두 번이나 서술한 것도(③, ⑤) 주목할 만하며, 사람들의 반응(막 1:5, ④)과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진술(막 1:4, ⑤)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인데, 이는 마가복음과 리치의 배열 순서와도 다르다. 이렇게 볼 때,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서술하면서 알레니는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참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리치가 제안한 본문의 순서를 따라 번역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언행기략』의 본문이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본문에 상당히 근접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산상수훈/평지 설교와 심판 예언, 두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3.2.2. 산상수훈/평지 설교(III.1; c.46-c.52)

리치는 산상수훈/평지 설교를 일곱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했지만(c.46-c.52), 알레니는 한 항목으로 묶었다(III.1, 山中聖訓). 또한 리치는 산상수훈/평지 설교의 서술을 열두 제자 선택(눅 6:13-19; 막 3:13-19)으로 시작하고, 한센 병자 치유(마 8:1-4)로 끝맺지만, 알레니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앞 항목(II.23)과 다음 항목(III.2)에 넣고, 마태복음 5-8장(산상수훈), 누가복음 6:20-49(평지 설교)의 예수의 가르침만을 다루었다.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동일한 순서로 산상수훈/평지 설교의 자료를 배열했다(<표 3>).

25) 이는 안센의 배열과도 일치한다. 후에 리치는 이사야서를 중복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1621년 『합일복음서』에서 병행본문에서 막 1:1-3을 생략하고 이사야서 인용 부분에서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른 이사야서 인용 본문(마 3:3=눅 3:4)을 삽입했다.

<표 3> 산상수훈/평지 설교 비교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성경 구절	내용	『언행기략』
Sermo Domini in monte, c.46	눅 6:13-19; 막 3:13-19; 마 5:1	열두 제자 선택	이전 항목
	눅 6:20-26; 마 5:2-12	복 있는 자	1a.4-2a.2
	마 5:13-16	소금과 빛	2a.3-2a.8
Continuatio sermonis, c.47	마 5:17-20	예수와 율법	2a.9-2b.6
	마 5:21-26	노하지 말라	2b.6-3a.2
	마 5:27-32	간음하지 말라	3a.2-3b.1
	마 5:32-37	맹세하지 말라	3b.1-4a.1
Continuatio sermonis, c.48	마 5:40-48; 눅 6:27-36	원수를 사랑하라	4a.2-4b.6
Continuatio sermonis, c.49	마 6:1-4	은밀히 구제하라	4b.7-5a.2
	마 6:5-15	이렇게 기도하라	5a.2-5b.4
	마 6:16-18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5b.4-5b.5
Continuatio sermonis, c.50	마 6:19-34	염려하지 말라	5b.6-6a.6
Continuatio sermonis, c.51	눅 6:37-42; 마 7:1-5	비판하지 말라	6a.7-6b.4
	눅 6:43-45; 마 7:15-20	열매로 나무를 안다.	6b.5-6b.8
Continuatio sermonis, c.52	마 7:6-12	구하라 찾으라	6b.9-7a.6
	마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a.7-7a.9
	마 7:21-29; 눅 6:46-49	말씀을 행하는 사람	7b.1-8a.3
	마 8:1-4	한센병자 치유	이후 항목

리치와 알레니는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를 따로 배열하지 않고, 병행 부분을 조화본문으로 만들어 하나로 합쳤다. 더 나아가서 리치와 알레니는 기도와 금식, 재물에 대한 산상수훈의 가르침(마 6:1-34)을 서술한 다음,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 ‘비판하지 말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가르침을 넣고, ‘구하라 찾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마태복음의 가르침(마 7:6-14)을 뒤에 배열하여,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의 순서를 바꾸었다. 리치와 알레니는 산상수훈/평지 설교의 가르침을 배열하는 순서에서 완전히 동일

하다. 이제 ‘복된 자’와 ‘비관하지 말라’ 두 내용을 중심으로 리치와 알레니의 조화본문을 비교해보자.

(1) 복된 자

<표 4>가 보여주듯, 복된 자에 대한 서술에서 알레니의 본문 배열은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본문 배열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알레니는 누가복음으로 예수의 산상수훈/평지 설교의 상황을 제시하고(눅 6:17-18, 20; ①~④), 마태복음을 따라 팔복(마 5:3-10, ⑤~⑫),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눅 6:22-24; 마 5:11-12, ⑬~⑮)을 서술하고, 누가복음의 화의 선포(눅 6:23-26, ⑯~⑰)를 배열했는데, 이는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병행본문인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⑬~⑮)에서 알레니는 리치처럼 이 병행본문의 모든 내용을 살려서 하나의 조화본문을 만들지 않고, 마태복음을 따라 본문을 제시했다고 보이는데, 5:11(=눅 6:22)과 5:12b(=눅 23b)의 순서를 바꾸었다.²⁶⁾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 뒤에(마 5:10, ⑫), 과거 성인들에 대한 핍박을 연결시킴으로써(마 5:12b, ⑬),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에 대한 하늘의 보상(마 5:12a, ⑮)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표 4> 복된 자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언행기략』
눅 6:17-19	① 耶穌與宗徒同在山中。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 중에 함께 있었다. ② 四方聞而至者無算，爭願親就耶穌。 [눅 6:17] 사방에서 듣고 이른 자들이 셀 수 없었고, 예수에게 가까이 나아오기를 다투어 원했다. ③ 於是耶穌大展好生之德。凡病者被魔者。一就無不立愈。從者彌衆。 [눅 6:19] 이때에 예수께서 생명을 사랑하는 능력을 크게 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한 번 나아오면 즉시 치유되지 않음이 없으니 따르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26)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거의 비슷해서 어느 본문을 따랐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다만 어휘나 표현이 마 5:11-12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리치는 이 병행본문에서 눅 6:22과 마 5:11을 모두 포함시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에선 누가복음을 택하고(눅 6:23a),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말씀(마 5:12b; 눅 6:23b)을 모두 포함하도록 제안하는데, 알레니는 이와 달리 병행 구절을 하나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p>눅 6:20 마 5:2 마 5:3-10</p>	<p>④ 耶穌仰首。顧弟子而先諭以眞福八端曰。 [눅 6:20]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부연] 먼저 여덟가지 참 복을 깨우쳐 이르시되</p> <p>⑤ 神貧者乃眞福。爲其已得天上國也。 [마 5:3] 영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이다.</p> <p>⑥ 良善者乃眞福。爲其將得安土也。 [마 5:5] 어질고 선한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장차 기업을 될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p> <p>⑦ 涕泣者乃眞福。爲其將受慰也。 [마 5:4]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장차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p> <p>⑧ 嗜義如飢渴者乃眞福。爲其將得飽飫也。 [마 5:6] 주리고 목마르듯 의를 좋아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장차 배부르게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p> <p>⑨ 哀矜者乃眞福。爲其將蒙哀矜已也。 [마 5: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그 자신이 장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p> <p>⑩ 心淨者乃眞福。爲其將得見天主也。 [마 5:8]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장차 천주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p> <p>⑪ 和睦者乃眞福。爲其將謂天主之子也。 [마 5:9] 화목자는 복되도다. 그는 장차 천주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p> <p>⑫ 爲義而被窘難者乃眞福。爲其已得天上國也。 [마 5:10] 의를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는 복되도다. 그는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이다.</p>
<p>[눅 6:22] <u>beati eritis cum vos oderint homines et cum separaverint vos et exprobraverint et eiecerint nomen vestrum tamquam malum</u> [마 5:11] <u>cum maledixerint vobis et persecuti vos fuerint et dixerint omne malum adversum vos mentientes propter</u> [눅 6:22] <u>filium hominis.</u> [눅 6:23a] <u>Gaudete in illa die et exultate ecce enim merces vestra multa in caelo.</u> [마 5:12a] <u>sic enim persecuti sunt prophetas qui fuerunt ante</u></p>	<p>⑬ 又曰。爾聞前聖嘗被世人窘迫乎。 또 이르시되, [마 5:12b] 너는 이전의 성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p> <p>⑭ 故吾復誨爾曹。若誤認爾爲不善。深惡爾。彼無當於汝之實。則妄甚也。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다시 깨우쳐 준다. [마 5:11] 만약 너희가 선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오인하여 너희를 심히 미워하면, 너희의 실제에 맞지 않게 여기는 것이며, 망령됨이 심한 것이다.</p> <p>⑮ 顧爾爲主而遭此。倍可嘉焉。爲必獲天上之厚報也。 [눅 6:23a=마 5:12a] 너희들은</p>

vos. [눅 6:23b] secundum haec enim faciebant prophetis patres eorum.	주를 위해 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뻐하라. 필히 하늘의 후한 보답을 얻을 것이다.
눅 6:23-26	<p>①⑥ 復歔歔慨嘆受世福者而言曰。爾富矣。貴矣。安享之。以爲樂在是矣。汝飽且飫矣。惜哉。其必將有飢渴矣。[부연] 세상 복을 받은 자에 대해 다시 애통하며 분개하고 탄식하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눅 6:24] “너희는 부하고 귀하다. 그것[부귀]을 평안히 누리고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고 여기는구나. [눅 6:25] 너희는 배부르고 잘 먹는구나. 애석하구나. 그들은 장차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p> <p>①⑦ 爾笑樂矣。哀哉。其必將有涕泣矣。[눅 6:25] 너희는 웃고 즐거워하는구나. 슬프구나. [그들은] 장차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것이다.</p> <p>①⑧ 茲受人贊美矣。痛哉。其必將受苦辱不堪矣。[눅 6:26] [너희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구나. 애통하구나. 그들은 장차 감당 못할 어려움과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p>

(2) 비판하지 말라

<표 5>가 보여주듯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대해 알레니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시한 다음(눅 6:37-42, ①~⑥), 마태복음을 따라 위선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배열했다(마 7:15-19, ⑦~⑧, ⑩~⑪). 리치는 병행본문을 모두 살려서 조화본문을 만들도록 제안했지만, 알레니는 하나의 본문(마 7:15-19)만 택하였다. 또한 마태복음 본문 중간에 마음과 말과 행동의 관계를 다룬 누가복음의 말씀(눅 6:45, ⑨)을 삽입한 것이 마지막에 배열한 리치와 구분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표 5> 비판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언행기략』
눅 6:37-38a 마 7:2a 눅 6:38b	<p>① 又曰。爾不輕議人。人必不輕議爾。爾務恕人。人必恕爾。[눅 6:37]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으면, 남도 틀림없이 너희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 힘쓴다면 남도 틀림없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p> <p>② 爾竭力多施人。必見施爾滿囊也。爾若度量以施。亦必施爾以度量也。[눅 6:38] 너희가 온 힘을 다하여 남에게</p>

	<p>많이 베푸다면, 너희가 주머니를 가득 채울 정도로 베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베푸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p>
<p>눅 6:39-42</p>	<p>③ 又曰。瞽能相瞽乎。俱蹶陷矣。 [눅 6:39] 또 이르시되,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있으리오? 함께 넘어져 빠질 것이다. ④ 徒能勝師乎。得與師齊已矣。 [눅 6:40] 제자가 스승을 이길 수 있으리오? [다만] 스승과 자신을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彼偽善者第見人目之有小草。不覺己目之有巨木。 [눅 6:41] 저 위선자들은 다만 남의 눈에 작은 풀이 있는 것만 보고 자기 눈의 커다란 나무 조각은 깨닫지 못한다. ⑥ 故欲去人目之小草。必先拔己目之巨木。 [눅 6:42] 그러므로 남의 눈에 작은 풀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엇보다도 자기 눈의 큰 나무 조각을 뽑아야 할 것이다.</p>
<p>마 7:15-16a 눅 6:43-44a 마 7:16b 눅 6:44b 마 7:17-20 눅 6:45</p>	<p>⑦ 又曰。爾毋誤認偽善者，彼羊質而狼心。 [마 7: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위선자를 오인하지 말라. 그들은 양의 거죽이나 이리의 마음이다. ⑧ 爾宜以其行察之。索肥菓葡萄於荊棘中，必不可得也。 [마 7:16] 너희는 그들의 행위로써 살펴야 한다. 무화과와 포도를 가시나무 속에서 찾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 ⑨ 心爲善之府。亦惡之藏。言乃心之華，行乃心之實。 [눅 6:45] 마음은 선의 곳간도, 악의 곳집도 된다. 말은 마음의 꽃이며 행동은 마음의 열매이다. ⑩ 未聞惡根能結善菓也。 [마 7:18] 악한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⑪ 然不結善菓之樹。必伐而焚之。 [마 7:19]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서 불살라야 한다.</p>

3.2.3. 심판 예언(VI.23-25; c.124-c.127)

리치는 공관복음 소묵시록을 도성 함락 예언(c. 124), 세계 종말 조짐(c.125), 자연 세계의 종말 조짐(c.126), 깨어 있으라(c.127)의 네 항목으로 나누어 다루었는데, 알레니는 마지막 항목을 생략했다. <표 6>는 리치가 주제에 따라서 성경 본문의 순서를 바꾼 것을 잘 보여 준다. 첫 항목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막 13:1-5a 병행) 다음에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환란의 시작(막 13:14-18 병행)이 나오며, 둘째 항목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종말의 징조(마 24:4b-8 병행)와 통치자들의 꾀박과 박해(마 24:9-14 병행) 사이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등장(마 24:21-28 병행)이 삽입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셋째 항목과 넷째 항목에선 인자의 재림(막 13:24-27 병행) 이후

의 본문이 순서대로 배열되었다. 『언행기략』은 이러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표 6> 심판 예언의 배열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성경 구절	내용	『언행기략』	
Euerrenda Ierusalem. c.124	막 12:41-44; 눅 21:1-4	과부의 헌금	VI.23	이전 항목
	막 13:1-5a; 눅 21:5-7; 마 24:1-3a	성전 파괴 예언		14b.9-15a.4
	막 13:14-18; 눅 21:20-24; 마 24:15-20	도성의 멸망		15a.4-15a.9
Iudicij signa terrestia. c.125	마 24:4b-8; 막 13:5-8; 눅 21:8-11	전쟁	VI.24	15b.2-15b.7
	마 24:21-28; 막 13:19-23	거짓 그리스도		15b.7-16a.4
	마 24:9-14; 막 13:9-13; 눅 21:12-19	핍박과 처형		16a.5-16b.3
Signa caelestia. c.126	막 13:24-27; 마 24:29-31; 눅 21:25-28	인자의 재림	VI.25	16b.5-17a.1
	막 13:28-29; 마 24:32-33; 눅 21:29-31	무화과나무 비유		17a.1-17a.2
	막 13:30-31; 마 23:34-35; 눅 21:32-33	천지는 없어져도		17a.2-17a.3
Ignotus dies Iudicij c.127	마 24:36; 막 13:32	재림의 때		없음
	마 24:37-41; 막 13:33-37; 눅 21:34-36	깨어 있으라		
	마 24:42-44	도적 비유		
	마 24:45-51	충성된 종 비유		
	눅 21:37-38	올리브 산으로		

이제 심판 예언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도성 함락 예언

도성 함락 예언에서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언행기략』의 사건 배열은 거의 일치하며, 『언행기략』은 병행본문에서 중복을 피하고 한 본문만 채택한다는 점에서 『우리 주 예수의 생애』보다 축약된 본문을 보여준다(<표 7>). 다만 알레니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 대한 화의 선포(눅 21:23a,

⑩)를 도성에서의 살육과 피난(눅 21:24, ⑨) 뒤에 배열하여 누가복음과 리치의 순서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표 7> 도성 함락 예언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연행기략』
<p>Euerrenda Ierusalem. c.124</p>	<p>第二十三 預嘆都城張毀 도성이 파괴될 것을 미리 탄식하다</p>
<p>[막 13:1] Et cum egrederetur [마 24:1] <u>순서 바뀜</u> Iesus de templo et egressus ibat. Et accesserunt discipuli eius, ut ostenderent ei aedificationes templi. [눅 21:5] Et quidam discentibus de templo quod bonis lapidibus, et donis ornatum esset. [막 13:1] ait illi unus ex Discipulis suis: <u>Magister, aspice quales lapides, et quales structurae.</u> Et [마 24:2] ipse autem [막 13:2] Iesus [마 24:2] respondens dixit illis: Videtis haec omnia? [막 13:2] Has omnes magnas aedificationes? [마 24:2] Amen dico vobis, [눅 21:6] Haec, quae videtis, <u>venient dies, in quibus non reliquetur [마 24:2] hic lapis super lapidem, qui non destruat.</u></p>	<p>① 耶穌出。有弟子請曰。吾師。嘻。觀斯殿乎。何其崑壯若是哉。 [막 13:1] 예수께서 나오시니, 한 제자가 청하여 이르되, 나의 스승이시여, 이성전을 보십시오! 어찌 그리 높고 웅장함이 이와 같겠습니까?</p> <p>② 耶穌曰吁。爾輩今日所見而羨者。異日必將全毀。併石無聯者矣。 [눅 21:6] 예수께서 탄식하며 이르시되 아아, 너희들이 오늘 보고 부러워한 것이 다른 날에 반드시 전부 무너질 것이니 [마 24:2] 나란히 있던 돌이 [하나도]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p>
<p>[막 13:3] Et cum sederet in Monte oliuarum contra templum, [마 24:3] sedente eo, accesserunt ad eum Discipuli secreto, [눅 21:7] Interrogauerunt illum, [막 13:3] separatim Petrus, et Iacobus et Ioannes, et Andreas: [눅 21:7] dicentes: Praeceptor, [마 24:3] Dic nobis, quando haec erunt? [막 13:4] quando ista fient? et quod signum erit, quando haec omnia [눅 21:7] fieri incipient [막 13:4] consumari? Et respondens Iesus coepit discere illis.</p>	<p>③ 頃之。耶穌坐於對堂之山。伯鐸羅雅各伯若望及諸德肋諸弟子審問曰。 [막 13:3] 잠시 후에 예수께서 성전 맞은 편 산에 앉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등, 여러 제자들이 자세히 물어 이르되</p> <p>④ 吾師所云。將在何時。厥兆如何。耶穌曰。 [막 13:4]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가 장차 어느 때이며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p>
<p>[눅 21:20] Cum videritis circumdari ab exercitu Ierusalem, tunc scitote quia appropinquavit desolatio eius. [마 24:15] Cum ergo videritis</p>	<p>⑤ 斯城被圍。卽其期也。 [눅 21:20] 이성이 포위되는 [막 13:5a] 바로 그 때다.</p> <p>⑥ 見枯荒醜惡。在聖所時。如達尼額預言者。乃降刑之日也。 [마 24:15]</p>

<p><u>abominationem desolationis, quae dicta est a Daniel propheta, stantem in loco sancto, [막 13:14] vbi non debet, qui legit, intelligat. [눅 21:21] Tunc qui in Iudaea sunt, fugiant ad montes et qui in medio eius, discedant: et qui in regionibus, non intrent in eam: [눅 21:22] quia dies ultionis hi sunt, vt impleantur omnia, quae scripta sunt. [막 13:15] et qui super tectum, ne descendat in domum, nec introeat vt tollat quid de domo sua: et qui agro erit, non reuertatur retro tollere vestimentum suum. [눅 21:23] Vae autem praegnantibus, et nutrientibus in illis diebus. erit enim pressura magna super terram, ira populo huic. [눅 21:24] et cadent in ore gladij: et captiui ducentur in omnes Gentes: et Ierusalem calcabitur a Gentibus donec impleantur tempora nationum. [마 24:20] Orate autem vt non fiat fuga vestra in hieme, vel sabbato.</u></p>	<p>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추악한 것이 성소에 있는 것을 볼 때, [눅 21:20b] 곧 형벌이 내리는 날이다.</p> <p>⑦ 當是時。凡在國內者。宜逃諸山。 [눅 21:21] 이 때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러 산으로 도망가야만 한다.</p> <p>⑧ 在屋上者。不宜下取諸物。在郊外者。毋回携衣。 [막 13: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와서 물건들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 밖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돌아와서는 안 된다.</p> <p>⑨ 人將死於鋒鏑。及被擄於異邦。都城蹂躪。氓庶離竄。 [눅 21:24] 사람들은 칼과 화살에 죽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도성이 짓밟히고 백성이 무리를 지어 떠나 달아날 것이다.</p> <p>⑩ 惟懷孕抱子者。甚可憫也。 [눅 21:23a] 아이를 가진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심히 불쌍하다.</p>
--	---

(2) 종말의 징조와 박해

종말의 징조와 박해에 대한 본문 배열에서 『언행기략』은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본문 배열과 대체로 일치한다(<표 8>). 리치는 이 본문을 셋으로 구분하였는데, 알레니는 첫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을 따랐다(마 24:3-6, ①~④). 둘째 부분에서 알레니는 누가복음 21:10-11(⑤~⑥), 마태복음 24:21(⑦), 마가복음 13:20-23(⑧~⑪), 마태복음 24:27-28(⑫~⑬)로 본문을 배열했는데, 이는 마가복음 13:23(⑩)만 제외하고 모두 리치의 배열과 일치한다. 셋째 부분에서 알레니는 누가복음 21:12-15, 18-19(⑭,⑯,⑰~⑳)와 마태복음 24:13-14(㉓~㉔)를 중심으로 놓고 중간에 마태복음 24:9(⑮), 마가복음 13:11(⑰), 마태복음 24:10(㉑)과 마가복음 13:12(㉒)를 삽입했는데, 『우리 주 예수의 생애』와 배열 순서가 상당히 다르다. 리치는 후반부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배열하고(마 24:9-14), 마태복음 24:13(㉓에 해당) 다음에 누가복음 21:18-19(⑲⑳에 해당)을 삽입했기 때문이다.

<표 8> 종말의 징조와 통치자의 박해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언행기략』
Iudicij signa terrestia. c.125	第二十四 預言審判世上前兆 심판 때 세상에 있을 조짐에 대해 미리 말하다.
<p>[마 24:3] <u>Et quod sigum aduentus tui et consummationis saeculi?</u> [마 24:4] <u>Et respondens Iesus, dixit eis. Videte nequis vos seducat.</u> [눅 21:8] <u>multi enim venient in nomine meo dicentes quia ego sum</u> [마 24:5] <u>Christus: Et multos seducent</u> [눅 21:8] et tempus appropinquavit. nolite ergo ire post eos. [마 24:6] <u>Auditori autem estis proelia, et opionones proeliorum.</u> [막 13:7] <u>Cum audieritis autem, bella,</u> [눅 21:9] et <u>seditiones,</u> [막 13:7] et <u>opiniones bellorum.</u> [마 24:6] <u>Videte ne turbemini.</u> [눅 21:9] <u>nolite terreri.</u> [막 13:7] <u>ne timueritis: oportet enim haec fieri</u> [눅 21:8] <u>primum</u> [마 24:6] <u>sed nondum est statim finis.</u></p>	<p>① 宗徒復問。吾主降臨。及世界窮盡。亦將有先兆耶。 [마 24:3]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우리 주님의 강림과 세상 종말 역시 전조가 있을까요? ② 耶穌曰。慎勿爲人所誑。 [마 24:4]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사람에게 속지 말라. ③ 蓋將有冒我之名而來者。自云我乃契利斯督。以惑於衆。 [마 24:5] 장차 내 이름을 사칭하며 오는 자가 있을 것이니, 스스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④ 其時將聞兵戈之興。及戰鬪之議乃心勿搖。夫兵戈在所不免。然猶未也。 [마 24:6=막 13:7] 그때에 전쟁의 발발과 전쟁 계획을 듣게 될 것이니 마음을 동요치 말라. 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끝이 아니다.</p>
<p>[눅 21:10] <u>Tunc dicebat illis: Surget gentes contra gentes, et regnum aduersus regnum.</u> [눅 21:11] <u>Et terraemotus magni erunt per loca, et pestilentiae, et fames, terroresque de caelo, et signa magna erunt.</u> [마 24:8] <u>Haec autem omnia initia sunt dolorum.</u> [마 24:21] <u>Erit enim tunc tribulatio magna qualis non fuit ab initio mundi vsque modo neque fiet.</u> <u>Et nisi breuiati fuissent dies illi non fieret slaua omnis caro.</u> [막 13:19] <u>quam condidit Deus vsque nunc, neque fient,</u> [막 13:20] <u>sed propter electos, quos elegit, beuiauit dies.</u> [막 13:21] <u>Et tunc si quis vobis dixert: Ecce hic est Christus, ecce illic, ne credideritis.</u> [막 13:22] <u>Exurgent enim pseudochristi, et pseudoprophetae, et</u></p>	<p>⑤ 必將民與民作亂。國與國爭奪。 [눅 21:10] 틀림없이 민족과 민족이 난리를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빼앗으며, ⑥ 而隨處有地大震。及瘟疫饑饉。天變可驚。怪異可畏。 [눅 21:11] 곳곳에 큰 지진과 온역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변화여 두려움이 되고 괴이한 일들이 공포가 되리니 ⑦ 從生人以來所未有者。若不蚤畢斯事。將舉世不能保一人。 [마 24:21]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없었던 것들이다. [마 24:22] 만약 이 일을 일찍 끝내지 않으면 온 세상에는 한 사람도 보전될 수 없을 것이다.</p>

<p><u>dabunt signa</u> [마 24:24] magna, et prodigia [막 13:22] et portenta ad seducendos si fieri potest, etiam electos. [마 24:24] ita vt in erroem inducantur (si fieri potest) etiam electi. [마 24:26] Si ergo dixerint vobis, Ecce in deserto est nolite exire: ecce in penetralibus nolite credere. [마 24:27] <u>Sicut enim fulgur exit ab oriente et paret vsque in occidente: ita erit et aduentus Filij hominis.</u> [마 24:28] <u>Vbicumque fuerit corpus illic congregabuntur et aquilae.</u> [막 13:23] <u>Vos ergo videte: Ecce praedixi vobis omnia.</u></p>	<p>⑧ 但爲天主所簡閱者。稱縮其期耳。 [막 13:20] 다만 천주께서 선택한 자를 위해 그 기한을 단축할 뿐이다. ⑨ 斯時也。若有人向爾云。契利斯督在此在彼。慎勿信也。 [막 13:20b] 이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향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여도 삼가 믿지 말라. ⑩ 必有僞契利斯督及僞先知者。顯爲奇異。欲誑及夫簡閱諸人。 [막 13:22]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기사와 이적을 드러내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이고자 할 것이다. ⑪ 爾輩其慎之。我已預言之矣。 [막 13:23] 너희들은 그들을 삼가라. 내가 이미 그것을 예언했다. ⑫ 人子之臨格。如霹靂閃爍間。自東徂西。 [마 24:27] 인자의 오심은 벼락이 번쩍하는 사이에 동에서 서에 이르는 것과 같다. ⑬ 凡身所在。啞已辣鳥畢聚焉。【解見前】 [마 24:28] 주검[身]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다 모일 것이다。 【풀이는 앞을 보라】</p>
<p>[막 13:9] Videte autem vos metipsos [눅 21:12] ante haec omnia <u>iniciant vobis manus suas et persequuntur tradentes in synagogas, et custodias, trahentes ad reges et praesides propter nomen meum.</u> [막 13:9] Tradent enim vos in concilijs, et in synagogis vapulabitis, ante praesides et reges stabitis propter me [눅 21:13] <u>continget autem vobis in testimonium</u> [막 13:9] illis. [막 13:10] Et in omnes gentes primum oportet praedicari Euangelium. Et cum duxerint vos tradentes. [눅 21:14] Ponite in cordibus vestris non praemeditari quemadmodum respondeatis. [막 13:11] <u>nolite praecogitare quid loquamini: sed</u></p>	<p>⑭ 時將有人誣爾。送爾於官。禁於獄。見於諸王。 [눅 21:12] 그때 장차 사람이 너희를 무고하여 너희를 관[官]에 보내 옥에 가둘 것이다. 너희는 왕들에게 보이고 ⑮ 爲衆所憾。 [마 24:9] 군중의 원한 거리가 될 것이다. ⑯ 此乃爲我以証道。 [눅 21:13] 이는 바로 나를 위해 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⑰ 爾輩不必豫思所當酬答之辭。 [막 13:11] 너희들은 굳이 대답해야 할 말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⑱ 我乃將與爾口舌智慧。爾仇所弗能敵。 [눅 21:15] 내가 장차 너희에게 구변</p>

<p><u>quod datum vobis fuerit in illa hora, id loquimini.</u> [눅 21:15] <u>ego enim dabo vobis os et sapientiam cui non poterunt resistere et contradicere omnes aduersarij vestri.</u> [막 13:11] non enim vos loquentes sed Spiritus Sanctus. [마 24:9] Tunc tradent vos in tribulationem. [눅 21:16] Trademini autem a parentibus et fratribus et cognatis et amicis, et morte afficient ex vobis. [막 13:12] <u>Tradet autem frater fratrem in mortem, et pater filium, et consurgent filij in parentes, et morte afficient eos.</u> Et [마 24:9] <u>eritis odio omnibus gentibus propter nomen meum.</u> [마 24:10] Et trunc scandalizabuntur multi, et inuicem tradent, et odio habebunt inuicem. [마 24:11] Et multi pseudoprophetae surgent, et seducent multos. [마 24:12] Et quoniam abundauit iniquitas, refrigescet charitas multorum. [마 24:13] <u>Qui autem perseuerauerit vsque in finem, hic saluus erit.</u> [눅 21:18] <u>et capillus de capite vestro non peribit.</u> [눅 21:19] <u>In patientia vestra possidebitis animas vestras.</u> [마 24:14] <u>et praedicabitur hoc Euangelium regni in vniuerso orbe, in testimonium omnibus gentibus: et tunc veniet consummatio.</u></p>	<p>의 지혜를 줄 것이니 너희 원수가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p> <p>①9 卽爾首一髮亦不遺失。 [눅 21: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p> <p>②0 惟因爾之忍。永保爾之靈神也。 [눅 21:19] 오로지 너희의 인내로 인하여 너희 영혼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p> <p>②1 於斯時也。人將彼此相嫌相怨。 [마 24:10] 이때에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게 될 것이다.</p> <p>②2 昆弟相負。父訟其子。子背其父。以至於死。 [막 13:12] 죽을 때까지 형과 아우가 서로 등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소송할 것이며, 아들이 그 아비를 배반할 것이다.</p> <p>②3 克終其德者。方克保焉。 [마 24:13] 그 덕행을 끝마칠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p> <p>②4 第此教必先敷於八荒。以爲萬民之證。然後終盡詣格。 [마 24:14] 다만 이 가르침이 먼저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만민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한 후에 종말이 올 것이다.</p>
--	--

(3) 인자의 재림

리치는 인자의 재림 본문을 셋으로 나누었고, 이 순서는 『언행기략』에서도 발견된다. 알레니는 마가복음 13:24-25로 본문을 시작한 다음(①②), 대체로 누가복음에 따라 본문을 구성했다(눅 21:25-33, ③④, ⑧~⑫). 다만 인자의 표지(마 24:30, ⑤), 인자의 재림과 천사의 파견(막 13:26-27=마 24:30b-31, ⑥⑦)에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사용했다. 리치는 병행본문의 모든 정보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지만, 알레니는 병행본문에서 한 복음서의 본문만 사용했다.

<표 9> 인자의 재림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언행기략』
Signa caelestia, c.126	第二十五 預言審判天上前兆 심판 때 하늘에 있을 조짐에 대해 미리 말하다
<p>[막 13:24] <u>In illis diebus</u> [마 24:29] <u>statim</u> [막 13:24] <u>post tribulationem illam</u> [마 24:29] <u>dierum illorum</u> [눅 21:25] <u>erunt signa in sole et luna et stellis, et in terris pressura Gentium prae confusione sonitus maris et fluctuum:</u> [눅 21:26] <u>arescentibus hominibus prae timore, et expectatione quae supervenient universo orbi: nam</u> [마 24:29] <u>sol obscurabitur</u> [막 13:24] <u>et luna non dabit splendorem suum</u> [막 13:25] <u>et stellae caeli erunt decedentes</u> [마 24:29] <u>cadent de caelo et virtutes caelorum</u> [막 13:25] <u>quae in caelis sunt, mouebuntur,</u> [마 24:30] <u>et tunc parebit signum Filij hominis in caelo et tunc plangent omnes tribus terrae.</u></p>	<p>① 維時困難之後。日晦月冥。[막 13:24] 이때 환란 후에 태양이 캄캄하고 달이 어둡고 ② 星隕墜。天德動變。[막 13:25]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③ 諸異畢集。海湧濤洶。人將危迫痛哭。[눅 21:25] 모든 기이한 일들이 모두 모이니 바다가 용솟음쳐 파도가 세차게 치니 사람이 위태롭고 급박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다. ④ 且因其驚惶已甚。身如枯稿。[눅 21:26] 또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심해져서 몸이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다. ⑤ 然後人子之號【指十字架】現于中天。[마 24:30] 그 다음에 인자의 표징이【십자가를 가리킨다】하늘에 나타날 것이니,</p>
<p>[막 13:26] <u>Et tunc videbunt Filium hominis venientem in nubibus</u> [마 24:30] <u>caeli cum virtute multa et maiestate</u> [눅 21:27] <u>et cum potestate magna,</u> [막 13:26] <u>et gloria.</u> [막 13:27] <u>Et tunc mittet angelos suos</u> [마 24:31] <u>cum tuba, et voce magna: et congregabunt electos eius a quattuor ventis a summis caelorum vsque ad terminos eorum.</u> [눅 21:28] <u>His autem fieri incipientibus respicite et levate capita vestra: quoniam appropinquat redemptio vestra.</u></p>	<p>⑥ 始見人子赫赫威嚴。駕雲而降。[막 13:26] 비로소 인자가 빛나는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며, ⑦ 遣其天神。從天壤四風。聚諸善人。[막 13:27]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네 바람에서부터 선한 사람들 전부를 모을 것이다. ⑧ 爾輩見此。卽當舉目翹首。忻望爾等眞福已邇。[눅 21:28] 너희가 이것을 보면 눈을 들고 머리를 들라. 너희들의 참복이 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바라라.</p>
<p>[눅 21:29] <u>Et dixit illis similitudinem:</u> [마 24:32] <u>Ab arbore autem ficis discite parabolam:</u> [눅 21:29] <u>Videte siculneam,</u> [막 13:28] <u>cum iam ramus eius tener fuerit, et nata fuerint folia, cognoscitis quia</u></p>	<p>⑨ 以木取喻。見其生葉結實。必知夏期。[눅 21:29] 나무로 비유하건대, [마 24:32=막 13:28] 그것이 잎사귀를 내고 [눅 21:30]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여름이라는 사실을 안다.</p>

<p><u>in proximo sit aestas</u>: [눅 21:29] et omnes arbores [눅 21:30] <u>cum producant iam ex se fructum</u>, [마 24:33] ita et vos cum videritis haec omnia, scitote [막 13:29] quod in proximo sit [마 24:33] prope est in ianuis [눅 21:31] <u>regnum Dei</u>. <u>Amen dico vobis, quia non praeteribit generatio haec, donec [마 24:34] haec [눅 21:32] omnia fiant</u>. [눅 21:33] <u>Caelum et terra transibunt: verba autem mea non transibunt</u>.</p>	<p>⑩ 非遙見是諸效。卽知天國非遙。[눅 21:31] 머지않아 이 모든 효험을 보게 되면 천국의 머지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⑪ 我實語爾。斯人數未滅前。余所言諸事。一一必驗。[눅 21: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말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틀림없이 검증될 것이다. ⑫ 天地可毀。我言必不失也。[눅 21:33] 천지는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p>
---	---

산상수훈/평지 설교와 심판 예언은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가 조화본문 구성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리치와 알레니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리치가 병행본문의 단어와 어구를 하나로 엮어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면, 알레니는 예수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또한 리치의 『우리 주 예수의 생애』가 『합일복음서』처럼 조화본문 자체를 제시하지 않고 병행본문과 조화본문을 만드는 방법만 보여 준다는 것도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조화본문 구성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알레니는 리치처럼 병행본문에서 모든 정보를 제시하는 것보다 한 복음서의 본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알레니는 『우리 주 예수의 생애』에서 리치의 제안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조화본문을 만들었다. 이는 거라사 광인의 치유 본문에서 잘 나타난다.

3.2.4. 거라사 광인의 치유(II.15; c.35-c.36)

리치는 거라사 광인의 치유 이야기를 군대 귀신(Legio daemonum pellitur. c.34)과 돼지 떼로 축사(In porcous mittitur legio. c.35), 두 항목으로 다룬 반면, 알레니는 한 항목으로 다루었다(II.15 驅魔入豕). 거라사 광인의 치유는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는데(마 8:28-34; 막 5:1-20; 눅 8:26-39),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보다 간략히 서술되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가 두 명인 반면(마 8:28),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나오는데(막 5:1; 눅 8:27), 리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따르지만, 알레니는 마태복음을 따르며 귀신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①,⑧,⑮,⑰,⑲).

아래의 <표 10>과 <표 11>에서 보여주듯이 리치는 병행본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살려 하나의 본문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알레니는 병행본문 중 하나의 본문을 택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제 리치를 따라 이 본문을 둘로 나눠 비교하기로 하자.

(1) 군대 귀신

리치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와 귀신들린 자와의 만남을 서술한다면, 알레니는 마태복음에 의존하여 귀신들린 사람이 두 명이라고 밝힌다(①). 리치는 병행본문의 모든 정보를 보전하려 한다면, 알레니는 귀신들린 기간과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고(눅 8:27; 막 5:3; ②), 들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막고(마 8:28; ③), 굴을 파고 무덤에 살고 돌로 몸을 상하게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다녔다(막 5:5; ④)고 귀신들린 자들을 묘사한다. 다음에 알레니는 귀신들린 자들의 경배와 그 이유를 밝히고(⑤) 귀신들린 자의 요청을 서술하는데(⑥⑦), 이는 성경본문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의 순서와 다르다.

<표 10> 인자의 재림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언행기략』
Legio daemonum pellitur. c.34	驅魔入冢 마귀를 쫓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다
[눅 8:26] et navigaverunt ad regionem Gerasenorum, quae est contra Galilaeam [막 5:1] et venerunt trans fretum maris in regionem Gerasenorum. [마 8:28] <u>Et cum venisset trans fretum</u> [막 5:2] exeunti ei de navi, [눅 8:27] cum egressus esset ad terram [막 5:2] statim occurrit ei de monumentis [눅 8:27] illi vir quidam qui <u>habebat daemonium. iam temporibus multis et vestimento non induebatur neque in domo manebat, sed in monumentis</u> [막 5:3] <u>domicilium habebat, et neque catenis iam quisquam poterat eum ligare:</u> [막 5:4] quoniam saepe compedibus et catenis vinctus diruptisset catenas, et compedes comminuisset et nemo poterat eum domare. [막 5:5] <u>Et semper nocte ac die in monumentis et in montibus erat clamans, et concidens se lapidibus.</u> [눅 8:28] Is [막 5:6]	① 耶穌登岸。兩人跪於途。[마 8:28] 예수께서 언덕에 오르시자 두 사람이 길에서 무릎을 꿇었다. ② 蓋久被魔而狂者。人莫奈何，雖桎梏之弗能禁。[눅 8:27] 그들은 오랜 동안 마귀 들려 미친 자들로 [막 5:3] 사람이 어찌할 수 없었고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③ 鄉人乃驅諸野，猖狂尤甚，野絕行旅。[마 8:28] 마을 사람들이 들로 그들을 쫓아내니 미쳐 날뛰는 것이 더욱 심해져 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아섰다. ④ 嘗穴人之墓而居。或以石自擊，

<p>videns Iesum a longe [눅 8:28] ut vidit Iesum, [막 5:6] cucurrit, [눅 8:28] <u>procidit ante illum et adoravit eum et exclamans voce magna, dixit: Quid mihi et tibi est Iesu Fili Dei Altissimi? obsecro te, [막 5:7] adiuro te per Deum, ne me torqueas. [마 8:29] Venisti huc ante tempus torquere nos? [눅 8:29] Praecipiebat enim spiritui immundo vt exiret ab homine. [막 5:8] Dicebat illi: Exi spiritus immunde ab homine.</u></p>	<p>不顧殺身；或發大聲，震動林木 [막 5:5] 일찍이 남의 무덤에 구멍을 파서 살았다. 때로는 돌로 스스로를 내리쳐서 몸을 상해도 개의치 않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질러 숲을 진동시켰다. ⑤ 及耶穌過，乃匍伏於前。耶穌遂驅其魔。 [눅 8:28] 예수께서 지나가시자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렸으니, [눅 8:29] 예수께서 마침내 그 마귀를 쫓아버리셨다. ⑥ 魔乃自訴曰：我知耶穌至尊上主子也。 [눅 8:28] 마귀들이 스스로 하소연하기를, “우리는 예수께서 지극히 존귀한 천주의 아들임을 압니다.” ⑦ 勿窘我 [막 5:7]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p>
<p>[눅 8:30] <u>Interrogavit autem illum Iesus, dicens: Quod tibi nomen est? At ille dixit: [막 5:9] Legio mihi nomen est, quia multi sumus, [눅 8:30] quia intraverant daemonia multa in eum. [막 5:10] Et deprecabatur eum multum ne se expeleret extra regionem, [눅 8:31] ne impetraret illis vt in abyssum irent.</u></p>	<p>⑧ 耶穌問曰：爾入此二人者有幾魔？ [눅 8:30]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간 마귀가 몇이 되느냐?” ⑨ 曰：數千。 [막 5:9] 그들이 이르되, “수천입니다.” ⑩ 又曰：懇勿祛我入地獄, [눅 8:31] 또 이르되, “우리를 쫓아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p>

(2) 돼지 떼로 축사

『언행기략』에서 군대 귀신을 돼지 떼로 축사하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나온다. 알레니는 귀신들린 자들의 직접 화법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돼지 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간청을 제시하는데, 이는 누가복음 8:31(⑩)과 마태복음 8:31(참. 막 5:12, ⑪)에서 가져왔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돼지 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간청은(⑪) 복음서 본문과 리치에선 돼지 떼가 풀을 뜯고 있다는 언급 다음에 나오는데(눅 8:32; 마 8:30; 막 5:11, ⑫), 알레니는 순서를 바꾸었다. 또한 알레니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 전체를 생략했고

(눅 8:34-37; 마 8:33-34; 막 5:14-17), 주로 누가복음 본문을 활용하면서도 (눅 8:35, 37-39) 계속적으로 귀신들린 자가 두 명이라고 표기했다(⑮, ⑰, ⑱).

<표 11> 돼지 떼로 축사

『우리 주 예수의 생애』	『언행기략』
In porcos mittitur legio. c.35	驅魔入豕
<p>[눅 8:32] <u>Erat autem ibi</u> [마 8:30] non longe ab illis [막 5:11] circa montem <u>grex</u> magnus [눅 8:32] <u>porcorum multorum</u> pascentium in monte. [마 8:31] <u>Daemones autem</u> rogabant eum, [막 5:12] et deprecabatur eum [눅 8:32] vt <u>permitteret eos in illos ingredi</u>, [마 8:31] dicentes: <u>Si eijs nos hinc mitte nos in gregem porcorum</u> [막 5:12] vt in eos introeamus. [막 5:13] <u>Et concessit ei statim Iesus</u>. [눅 8:32] Et permisit illis. [마 8:32] Et ait illis: Ite.</p>	<p>⑪ 但願發於豕腹。[마 8:31] “다만 돼지 뱃속으로 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⑫ 時有豕群牧於近地。[눅 8:32] 그때 돼지가 무리 지어 근처에서 먹고 있었다. ⑬ 耶穌允之。[막 5:13] 예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p>
<p>[마 8:32] At illi [막 5:13] spiritus immundi [마 8:32] exeuntes [눅 8:33] ab homine [마 8:32] abierunt, [막 5:13] introierunt in procos et [마 8:32] ecce [막 5:13] magno impetu [마 8:32] <u>abiit totus grex per praeceps</u>, [막 5:13] <u>praecipitatus est in mare</u> [눅 8:33] et suffocatus est [마 8:32] et mortui sunt in aquis [막 5:13] ad duo millia suffocati. [눅 8:34] Quod vt viderunt factum [마 8:33] pastores [막 5:14] qui pascebant eos, fugerunt, [마 8:33] et venientes in civitatem, nunciaverunt omnia, [눅 8:34] et in villas [막 5:14] et in agros, Et egressi sunt videre quid esset factum: [마 8:34] Et ecce tota civitas exiit obuiam Iesu. [눅 8:35] Et veneunt ad Iesum: et invenerunt hominem sedentem [막 5:15] qui a daemonio vexabatur [눅 8:35] a quo daemonia exierant, <u>vestitum ac sana mente ad pedes eius</u>, et timuerunt.</p>	<p>⑭ 須臾群豕皆投於海 [마 8:32/막 5:13] 잠시 후에 돼지 떼가 모두 바다에 들어갔다. ⑮ 此兩人依然如平日 大詫前日之醜狀，顧戀耶穌膝下。[눅 8:35] 이 두 사람은 의연하기가 평소와 같았고, 이전의 추한 행태에 크게 놀라며 예수를 사모하게 되었다.</p>
<p>[눅 8:36] Nuntiaverunt autem [막 5:16] et narraverunt [눅 8:36] illis et qui videntant, [막 5:16] qualiter factum esset ei, qui daemonium habuerat, [눅 8:36] quomodo sanus factus esset a legione, [막 5:16] et de porcis [마 8:34] et viso eo [막 5:17] rogare coeperunt</p>	

<p>eum, [눅 8:37] et rogaverunt illum omnis multitudo regionis Gerasenorum [막 5:17] et [막 8:34] rogabant [눅 8:37] vt discederet ab ipsis [막 8:34] vt transiret a finibus eorum. [눅 8:37] quia magna timore tenebantur.</p>	
<p>[눅 8:37] <u>Ipse autem ascendens navem reuersus est,</u> [막 5:18] <u>cumque ascenderet nauem coepit illum deprecari</u> [눅 8:38] <u>vir</u> [눅 8:37] <u>qui daemone vexatus fuerat</u> [눅 8:38] <u>a quo daemones exierant</u> [눅 8:38] <u>et rogabat illum</u> [눅 8:38] <u>vt cum eo esset,</u> [막 5:19] <u>et non admisit eum, sed</u> [눅 8:38] <u>dimisit eum Iesus, dicens</u> [막 5:19] <u>illi: Vade</u> [눅 8:39] <u>Redi in domum tuam,</u> [막 5:19] <u>ad tuos et annuncia illis</u> [눅 8:39] <u>et narra</u> [막 5:19] <u>quanta tibi Dominus</u> [눅 8:39] <u>Deus</u> [막 5:19] <u>fecerit et misertus sit tui.</u> [눅 8:39] <u>Et abiit per vniuersiam ciuitatem, praedicans quanta illi fecisset Iesus,</u> [막 5:20] <u>et in Decapoli, et omnes mirabantur.</u></p>	<p>①⑥ 迨耶穌登舟欲回。[눅 8:37]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돌아가고자 하실 때 ①⑦ 兩人哀懇不離。[눅 8:38] 두 사람은 떠나시지 말기를 간청했다. ①⑧ 耶穌曰還家頌揚主恩憐恤爾者可也。[눅 8: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집에 돌아가서 [막 5:19] 주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①⑨ 二人歸而遍揚。[눅 8:39] 두 사람은 돌아가서 두루 알렸으니 ②⑩ 聞者無不驚怖。[막 5:20] 듣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p>

알레니는 리치와 달리 마태복음에 따라 거라사 광인이 두 명이라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알레니가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나가는 말

1635년에 간행된 알레니의 『언행기략』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4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하나의 복음서로 엮은 『언행기략』은 서구의 조화복음서 전통을 따른 하나의 조화복음서임이 분명하나, 이 작품은 단순히 복음서 본문만을 제시하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본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일종의 ‘조화복음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서 본문 외에도 역사적 배경이나 교리 해설, 단어와 어구 주해, 본문 묵상 등 다양한 형태로 복음서 본문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행기략』은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아브가르 왕

의 이야기나 부활한 예수의 성모 마리아와 베드로에게 나타남, 승천 성소 등 교회 전승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언행기략』의 중요성은 4복음서의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담은 ‘최초의 중문 조화복음서’이자 ‘최초의 중문 조화복음서 해설’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를 통해 『언행기략』은 당시 중국인들에게 복음서의 일부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4복음서가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 전체, 즉 예수의 생애 전체를 최초로 중문으로 전해 주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알레니는 복음의 내용에 낯선 중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부연 설명을 첨가함으로써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여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이익을 얻게”²⁷⁾ 하려는 집필 의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언행기략』과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띤 작품으로 1607년에 출판된 바르톨로메오 리치의 조화복음서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언행기략』의 저본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리치는 자신의 작품에서 조화본문을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알레니의 『언행기략』에 나오는 조화본문은 리치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어와 어구의 선택, 본문의 배열 순서에서도 알레니는 독자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때, 알레니의 『언행기략』이 리치의 조화복음서의 중문 역본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이 있다. 양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사건의 배열 순서에서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산상수훈/평지 설교와 심판 예언에서 나타나듯,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본문에서 『언행기략』과 『우리 주 예수의 생애』는 구성 요소를 배열하는 데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는 복음서 본문의 순서와 달라지는 부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정황적인 증거로 미루어볼 때, 알레니가 리치의 조화복음서를 알고 있었고, 중국에도 가져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행기략』을 저술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의 생애』를 참조했으며, 예수 사건 배열이나 조화본문 구성에서 리치의 조화복음서에 크게 의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알레니가 리치의 조화복음서를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알레니가 리치의 조화복음서 전통에 있는 다른 작품을 『언행기략』의 저본으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알레니가 리치의 조화복음서를 중국 선교 상황에 맞게 변용했다고

27) 令人心會身體 以資神益 (“萬日畧經說” Bnf Chinois 6709 4a.5-6).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언행기략』은 리치의 조화복음서처럼 4복음서의 모든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하나의 본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건의 전모를 중국인에게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해설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또 『우리 주 예수의 생애』가 조화본문 자체를 제시하지 않고 병행본문과 조화본문 구성 방법만 제시했다는 점도 알레니가 리치로부터 벗어나 본문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알레니는 병행본문을 자기 나름대로 연결시켜 예수 사건을 소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행기략』은 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문화 전수에서 보여준 변안(adaptation)의 또 하나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구 그리스도교 문헌을 참조하고 그 체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선교 상황에 맞추어 자유로이 응용하는 창조적 능력을 보여 주었다.

<주제어>(Keywords)

『천주강생언행기략』, 줄리오 알레니, 『복음서에서 뽑은 우리 주 예수의 생애』, 바르톨로메오 리치, 조화복음서, 저본.

Tianzu jiangsheng yanxing jiulie, Giulio Aleni, *Vita D. N. Iesu Christi*, Bartholomaeus Riccius, Gospel Harmony, Vorlage.

(투고 일자: 2018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9월 18일)

<참고문헌>(References)

- Aleni, Giulio,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uüe* 『天主降生言行紀略』(1635). Bnf Chinois 6709 & 6716.
- Aleni, Giulio, 艾儒略, 『艾儒略 漢文著述全集: The Collection of Jules Aleni's Chinese Works』, vol. 2, 葉農 ed., 桂林: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11.
- Augustinus, Aurelius, *De consensu evangelistarum Libri Quattuor* (Classic reprint), 2018.
- Eusebius von Caesarea, *Historia ecclesiastica. Kirchengeschichte I. Lateinisch – Deutsch*, Herder, 2000.
- Gerson, Ioannes, *Monotessaron seu unum ex quatuor evangelii in Ioannis Gersonii opera omnia, opera et studio M. Lud. Ellies du Pin*, 4, Antwerpen, 1706, 83-202.
- Jansen, Cornelius, *Concordia euangelica: in qua praeterquam quod suo loco ponuntur quae euangelistae non servato recensent ordine, etiam nullius verbum aliquod omittitur ...*, Antverpiae: Apud Iohannem Bellerum, 1558.
- Osiander, Andreas, *Harmoniae euangelicae libri quatuor Graece et Latine*, Basel, 1537.
- Riccus, Bartholomaeus, *Vita D. N. Iesu Christi: Ex uerbis Euangeliorum in ipsismet cocinnata*, Romae: Apud Barthol. Zanettum, 1607.
- The Teaching of Addai*, George Howard, trans., Text and Translations 16, Chico: Scholars Press, 1981.
- Gwilliam, G. H., “The Ammonian Sections, Eusebian Canons, and Harmonizing in the Syriac Tetraevangelium”, *Studia Biblica et Ecclesiastica* 2 (1890), 241-272.
- Hennecke, E. and Schneemelcher, W., *Neutestamentliche Apokryphen in deutscher Übersetzung I*, Tübingen: Mohr, 1999.
- Nordenfalk, Carl, *Die spätantiken Kanontafeln: kunstgeschichtliche Studien über die eusebianische Evangelien-Konkordanz in den vier ersten Jahrhunderten ihrer Geschichte*, vol. 2, Goteborg: Iascson, 1938.
- Oliver, Harold H., “The Epistle of Eusebius to Carpianus: Textual Tradition and Translation”, *Novum Testamentum* 3 (1959), 138-145.
- Parker, D. C.,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Petersen, William L., *Tatian's Diatessaron: Its Creation, Dissemination, Significance, and History in Scholarship*, Leiden: Brill, 1994.

- Pfister, Louis, *Not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s Jé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552-1773 Tome 1.*, Chang-Hai: Imprimerie de la mission catholique, 1932.
- Song, Gang. 宋剛, “從經典到通俗：《天主降生言行紀畧》及其清代改編本的流變” (From Sacred Scripture to Popular Narrative: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ue* and its Later Adaptations in Qing China), 「天主教研究學報」 2 (2011), 208-260.
- Theissen, Gerd,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s als literaturgeschichtliches Problem*, Heidelberg: Winter, 2011.
- Wünsch, Dietrich, *Evangelienharmonien im Reformationszeitalter: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Leben-Jesu-Darstellungen*, Arbeiten zur Kirchengeschichte 52,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3.
- 審鳳娟, “述而不譯? 艾儒略《天主降生言行紀畧》的跨語言敘事初探”, 『中國文哲研究集刊』,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第三十四期 (2009. 3.), 111-167.
- 서원모, 곽문석, “17세기 초 예수회 선교사의 복음서 한문 번역 연구 - 『天主降生言行紀畧』과 『天主降生聖經直解』와 『天主降生出像經解』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49:2 (2017), 115-157.
- 서원모, 곽문석, “성경 도해와 문화전수: 『천주강생출상경해』(천주강생출상경해, 1673)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7 (2017), 151-198.
- 서원모, 한승일, “『천주야소수난시말』(天主耶穌受難始末) 연구”, 「장신논단」 50:1 (2018), 157-193.
- 송혜경, 『신약 외경. 상권: 복음서』,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Character of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and Its Vorlage**

Wonmo Suh, Changsun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is designed to elucidate the literary character and the *Vorlage* of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written and published in the year of 1635 by Giulio Aleni (艾儒略, 1582-1649).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covers the life of Jesus Christ from the conception of John the Baptist to the Ascension and the birth of the church, and broadly belongs to the Gospel Harmony in its broad sense which integrates the texts of the four Gospels into one Gospel.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however, does not present the Biblical texts faithfully but recapitulates them, and adds non-Biblical materials such as comments on historical backgrounds and Christian doctrines, expositions on Biblical words and phrases, and meditative remarks. Hence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is said to be the first Chinese Gospel Harmony and the first Chinese exposition of the Gospel Harmon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spel Harmony, this study outlines the tradition of the Gospel Harmony in the Latin Christianity up to the sixteenth century, and draws its attention to the *Life of our Lord Jesus from the Gospels (Vita D. N. Iesu Christi ex uerbis Euangeliorum in ipsismet concinnata, 1607)* composed by Bartolomeo Ricci (1542-1613) (2). Since there is a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Aleni was acquainted with Ricci's work and used it in China, this study seeks to examine whether he utilized it as his *Vorlage* in his composition of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by comparing them in the structure of the Gospel Harmony (3.1) and the formation of harmonized texts (3.2).

This study corroborates that both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and the *Life of our Lord from the Gospels* perfectly display the full agreement in their arrangement of the events of Jesus Christ, and that both works substantially accord in their composition of harmonized texts, while Aleni did not strictly follow the suggestions of Ricci for formulating the texts, showing his own

freedom in selecting words and phrases and the textual order.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at while Aleni in his writing of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largely depended on Ricci's *Life of our Lord from the Gospels*, he adapted it into the context of Chinese mission. *Tianzhu jiangsheng yanxing jilüe* is another example of adaptation which the seventeenth-century Jesuit missionaries demonstrated in their transmission of Christian faith and Western culture.